

### 시론



梁承圭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7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여기서 의문사(疑問死)란 무엇이고 그 규명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문사란 사인이 불분명하거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번에 위원회의 법적 근거인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그 의문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진실 밝히는 일은 국가책임

우리나라는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할 민주국가이고, 국가권력을 장악한 정권이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고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고문을 가하고 억울한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그리고 공권력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해 민주화운동을 한 당사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사인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참으로 국가의 수치이다.

우리 헌법 10조의 인권보호 조항을 들먹일 필요조차 없이 의문사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산 증거이고, 공권력이 개입된 잘못을 밝혀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

다. 거처 얻어낸 법질이 바로 이 특별법이다. 이 점에서 이 법은 자못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장준하죽음등 숙제 많다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 우리 역사를 바로세우려는 뜻이 있다.

## 의문사규명은 역사적 소명

다. 역사의 진실을 밝혀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사회발전이 올바르게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문사의 진상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

위원회는 지난 1월15일 제정 공포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이 법이 탄생하기까지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다. 유가족들은 말 그대로 갖은 압박을 받으면서도 혼신의 정성을 다해 자녀나 가족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다.

420여일에 이르는 천막농성, 청원, 진정, 기도서명, 학술회의 등을

그 의문사와 관련해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자를 가려 처벌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두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밝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의 진실을 가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일이 있었고,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분명히 밝히는 데 위원회의 활동목표가 설정됐다.

그리고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위원회만의 몫은 아니다. 진상규명은 이 나라의 인권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 위에서 진행돼야 하고 국민의 협조 없이는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위원회가 그 진상을 밝혀야 하는 의문사는 1975년 8월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약사봉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상계 발행인 장준하(張俊河·당시 58세) 선생의 죽음이나 지난73년 10월 중앙정보부로부터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사건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를 받고 출두 후 50여시간만에 의문사한 최종길(崔鍾吉·당시 41세) 전 서울대 법대교수의 죽음과 같이 20여년의 세월이 지난 사건에서부터 근래에 일어난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증거가 불분명한 것이 있다는 점에서 진상을 밝히는 조사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바로세우고 우리 후손에게 그늘진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진실을 밝혀려고 노력할 때에 그 진상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 국민화합-민주발전에 도움

관계기관은 물론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이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반인권적인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우리의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의문사의 진상은 꼭 밝혀야 하고 또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시론-논단'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5·16 쿠데타로 민주헌정질서를 짓밟고 돌아선 박정희 군사정권이 권위주의 정권은 정치적 억압의 수단으로 고문을 조직적으로 감행했으나 그 하수인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양심적인 지식인이나 이에 항거한 수많은 학생이 의문의 죽음을 당해 유가족은 물

고 넘어가는 것은 또다시 우리 후손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그대로 남겨주는 치욕적인 행위이다. '일제가 100년, 200년을 갈 것으로 믿어 일제에 협력한 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신다'고 슬피한 한 원로시인이 방송에서 5·18광주만행을 저지른 군부통치자를 '부처님처럼 인자하다'고 발언했던 모습을 생각하며 과거청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

**'감춰진 죽음' 왜 밝히는가**

본 선량한 시민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국가의 위법행위는 인본에 반하는 범죄행위이고,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지난 1월 15일 제정·공포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 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0월 1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정식출범시켰다. 그러나 '특별법'의 제정과 위원회의 구성이 순탄하게 이뤄진 것은 아니다. 유가족과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는 10여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이 후 해야 할 수 없는 희생을 무릅쓰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각종 활동을 통해 그 토대를 만들어왔다. 뿐만 아니라 의문사가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화와 모든 개인의 인권에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왔다.

**민주화·인권문제 직결**

우리는 일제강점과 분단, 권위주의 통치시기를 거치면서 혼란과 격변의 현대사를 겪어 왔다. 그럼에도 독립운동을 비롯해 4·19혁명, 5·18 광주항쟁 8·15민주항쟁 등 역사와 고비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불의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싸운 수많은 국민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해 오욕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사회적 부패를 양산, 혼돈이 계속되고 있다.

해방후 일제의 식민통치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우리 민족의 한이다. 일제에 충성한 장교출신이 민주헌정질서를 짓밟고 권력정치를 휘두르고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고문이라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이른바 고문기술자를 길러낸 것은 일제청산을 못한 대가이다. 따라서 의문사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또다시 우리 후손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그대로 남겨주는 치욕적인 행위이다. '일제가 100년, 200년을 갈 것으로 믿어 일제에 협력한 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신다'고 슬피한 한 원로시인이 방송에서 5·18광주만행을 저지른 군부통치자를 '부처님처럼 인자하다'고 발언했던 모습을 생각하며 과거청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

**특/별/기/고**  
**양승규**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

다.  
과거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양산된 의문사는 왜곡된 현대사의 비극적인 상징이다. 과거의 잘못을 덮어두고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음을 역사적 교훈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역사의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 땅에서 불행이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민족적인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신성한 작업이다.

**'잘못된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러한 의문사와 관련, 죄를 범한 자는 스스로 비밀을 털어놓아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할 양심적 의무를 지닌다. 또 이를 위해 자백한 자는 형을 경감 또는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인간을 확대하는 고문은 당하는 사람보다 자행하는 사람을 더 오열시키는 행위이고, 고문 등으로 죽은 사람을 자살로 꾸민 행위는 인권을 거스르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죄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한 사람은 진실을 고백하고 정신적인 반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도 유익하다.

**새 시대의 교훈 삼아야**

진상규명위원회는 희생자의 죽을 고통을 가슴에 안고 진상을 밝히고자 준비해온 유가족 여러분의 피나는 투쟁으로 얻어진 기구이다. 위원회는 단순히 법에 의해 조직된 하나의 국가기관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진실을 밝혀 민족이 새로이 태어나도록 하는 소명을 띤 신성한 기관이라 할 것이다. 이 기관에 봉사하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일깨우고 도덕성을 바탕으로 법의 원칙과 주어진 권한의 범위에서 그 진상을 밝혀 역사적인 교훈을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로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국민들의 뜨거운 협조와 성원으로 진정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새 역사를 꾸며 주기를 당부한다.



논단

황인성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지난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어찌보면 매우 이색적인 행사가 있었다.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관 임명식이 그것이다. 국가기관에 의해 이미 자살 또는 사고사로 종결 처리되었으나, 길게는 3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어 온 해묵은 사건들의 성격과 실체를 밝혀야 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사람들이었다.

지난 10월 17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친 9명의 위원을 임명함으로써 출범하게 된 위원회에 대해 주위와 언론에서 우리의 시선이 없지 않았다. 크게 보면 하나는 위원회에 주어진 법적 권한과 조사기간의 제약이라는 제도적 한계와 관련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사주체와 관련된 것이었다.

사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은 매우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단 대통령소속 국가기관으로서 경찰, 검찰, 군, 국정원 등 7개 부처의 파견공무원들과 위원회가 직접 임용한 민간출신의 조사관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는 '베테랑'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파견 조사관들의 경우 수사경력 10년 이상, 민간 조사관들의 경우 민주화운동 경력 7년 이상을 갖고 있다.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과거에 '꽃고 꽃기던' 관계였던 두 집단이 동료로 만나게 된 것이다.

과연 이들이 과거의 벽을 허물고 협력해서 의문사 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피카르'를 기다리며

있을 것이다.

손발이 잘 맞지 않는 단순 '혼성군'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연합군'으로서 기능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위원회 자체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작업의 의의에 대한 국민의 깊은 인식과 관심, 그리고 격려 역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일 것이다. 실제로 조사관들은 각종 연수와 교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해 가고 있으며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역사적 진실'의 중요함을 강조할 때 우리는 흔히 '드레퓌스 사건'을 인용한다. 이 사건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은 에밀 졸라로 대표되는 프랑스 지식인들의 용기, 국가 안보와 개인 인권 사이의 갈등, 진실의 궁극적 승리 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가 드레퓌스 사건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드레퓌스를 고발했던 프랑스군 참모본부의 '피카르' 중령이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드레퓌스를 간첩으로 몰아간 문서의 필적이 다른 장교의 필적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다. 피카르는 평소 드레퓌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았으나 진실은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는데 그의 상관들은 국가의 권위를 내세워 진실을 묻어두기 원했고 오�히려 피카르는 협박을 받게 되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피카르가 굴복했다면 드레퓌스 사건은 영영 그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카르는 드레퓌스의 가족과 함께 드레퓌스의 무죄 입증에 나서고 프랑스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엔 드레퓌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했다.

당시에는 자기 조직의 파오를 드러내는 일이었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일이었지만 피카르는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섰고 궁극적으로 그는 프랑스와 프랑스 군대의 명예를 지킨 사람이 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정의롭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문제는 그 정의감을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문사 진상 규명에 나서는 조사관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사명감을 갖고 진상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국민들이 그들의 정의감을 믿어주고 발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손석준의  
여론일기



무릇 역사의 심판은 엄정하다. 잊을기 있는 이들을 잊지 않고 응징한다. 임진왜란을 망각한 조선의 싸은 정치판에 역사는 식민지배로 복수했다. 하물며 과거가 진실도 모른 채 묻혀진다면 그 과거는 언젠가 다시 현실로 우리를 압습하기 마련이다. 꼭 17년 전 바로 오늘을 새기는 까닭이다.

새벽 4시30분. 스물 한 살의 젊은이가 주검으로 발견된다. 가슴엔 3발의 총탄이 삽각형으로 박혔다. 몸 곳곳엔 전기고문 흔적이 또렷했다. 한희철. 경남 마산서 태어나 철도청 장학생으로 서울공대에 입학해 군 복무 중이었다. 가족들은 군 당국자들의 성화로 화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사망 직전에 국군보안사령부가 아들을 연행한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보안사로 찾아가다. 보안사는 5일 동안 조사한 사실은 시인했으나 고문은 완강히 부인했다.

마흔하늘에 날벼락은 비단 한희철만이 아니다. 1983년 그해만 들춰보아도 제대 8일 전에 잠복한 주검으로 발견된 이운성을 비롯해 김두황·한영현·최은순이 '자살'로 처리됐다.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들인 군대에 끌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원혼들 뒤견연 이른바 '녹화사업'이 떠올르고 있다.

합법적 절차도 없이 학생들을 강제징집해 사다듬이로 '사상전향'을 강요했다. 뿐만인가. 학우들을 정탐해 밀고하라고 다그쳤다. 그랬다. 녹화사업은 젊은 지식들의 술한 인권을 짓밟고 목숨을 앗아간 야만적 범죄였다. 범인은 누구일까. 국군보안사령부다. 그 시절 보안사는 군안의 또다른 군이었다. 보안사가 녹화사업의 야만을 감당할 저지할 수 있었던 든든한 법적 배경도 있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보안사와 보안법은 80년대 한국사회를 살풍경으로 만든 공범이었다.

386원혼과 386의원

정작 의문사가 의문사가 된 더 큰 책임은 언론에 있다. 강제징집과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젊은이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음에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의문사에서 '의문'의 딱지를 때내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실 언론은 의문사를 쉬쉬한 보안사의 벗바리였다. 유족들의 외로운 싸움 끝에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자 언론은 짐짓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허름송이 언론이 진상규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정말 의문이다.

민중의 힘으로 보안사가 제자리를 찾은 오늘도 보안법과 '보안언론'의 서술은 여전히 시퍼렇다. 의문사를 낳고 그것을 지금까지 의문사로 남게 한 보안법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보라. 그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는 언론이 있지 않은가. 언론의 거센 여론몰이로 국회는 보안법폐지 여론에 동몰된 채 지금 이 순간까지 우물쭈물하고 있다.

녹화사업의 첫 희생자인 연세대생 정성희가 남긴 일기는 상무동 살아 숨었다. "그 나라의 언론이 재구실을 못하고 진실을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은폐할 때. 그 나라 국민은 무지에서 비롯된 소극적이며 이기적이고 또한 근시안적인 무기력한 국민이 되어간다." 고인의 경고는 세계화의 흑암이 돌아치는 2000년 겨울 우리 모두를 통렬하게 질타한다. 오늘 우리는 삶에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이지 않은가. 무기력한 국민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오늘의 언론을 이대로 두어도 과연 우리 아들-딸은 안녕할까. 아니다. 하여 지금 이 순간도 지하에서 피울음을 토할 저 젊은 원혼들의 이름으로 묻는다. 386이라는 이유로 정당에 '수혈'돼 오늘 국회에 앉아 있는 젊은 의원들은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 보안법과 보안언론이 지배하는 겨울공화국을 당신은 잊었는가.

오늘의 국회에서 여야 두루 민주화운동을 '훈장' 삼아 금메달을 단 정치인들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386 의원들조차 그 가운데 하나로 꼽어지는 풍경은 서글프다. 젊은 의원들마저 보안법 폐지와 정간법 개정여론을 듣지 않는다면, 아니 심지어 몸을 사린다면, 더더욱 혼고싶다. 서론에 서보지도 못한 채 억울하게 죽은 '386 원혼' 앞에, 그리고 오늘도 전이슬 맞으며 보안법과 보안언론에 맞서 싸우는 저 '아름다운 386' 앞에, 당신은, 누구인가. 여론매체부장 songil@hani.co.kr



“아버지...”  
'의문사 1호'로 기록된 고 최종길 서울대법대 교수의 27주기 추모제에서 아들 최광준씨가 선친의 묘소와 사진 앞에 묵념하고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정부의 의무”

故최종길교수 추모제 열려

73년 간첩혐의 참고인조사 중앙정보부서 50시간만에 '투신자살' 주검으로 돌아와

'의문사 1호'로 꼽히는 고 최종길(崔鍾吉)서울대 법대 교수의 아들 최광준(崔光濬·37) 경희대 법대 교수는 21일 아버지의 무덤앞에서 느끼는 감회가 남달랐다. 고인이 돌아가신 지 스무일곱해가 지나서야 비로소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구체화됐기 때문.

이날 오후 2시 경기 마석 모란공원내 민주 열사 묘역에서 열린 '고 최종길교수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최근 발족한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기대를 걸며 "이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들 최교수에게 아버지의 부재는 상실 그 이상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이던 73년 10월16일 언젠가처럼 "학교 다녀오겠다"며 출근했던 아버지가 이를 뒤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온 이후 대문앞엔 늘 '낮

모르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아들 최교수의 어머니에게 "남편은 간첩이었다. 조사받다가 혐의가 드러나자 투신자살한 거다. 떠돌고 다니지 말라"며 어르고 달랬다.

세월이 흐르며 '아버지 최종길'은 '인간'으로 다가왔다. 관료 발탁 제안을 뿌리치고 '이 땅에 법치를 세우야 한다'던 대외쟁이 학자. 유신독재의 서슬이 시퍼럴던 시절 서울대 법대 학생과장이면서도 시위로 연행되는 제자들 손을 잡고 함께 울던 참스승, '신성한 캠퍼스를 경찰이 짓밟는다'며 호통치던 용기있는 교수. 이렇게 학자적 양심을 따르던 아버지는 간첩혐의를 받던 중화동창생의 참고인으로 중앙정보부에 불러졌다가 50시간만에 '7층에서 투신자살'이라는 의문사로 돌아왔던 것이다.

최교수는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는 진상 규명이 최우선이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민주화 투쟁을 하다 숨진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 친구야, 이젠 알수 있을까?

서울대 권익교의 7중 자녀권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 의미는 '조국을 사랑한 친구를 위하여'라는 글이 새겨진 검은색 키자온 나무대기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최학민 우편원, 수배중인 1989년 10월 12일 경부선 11번 열차에서 주검이 발견된 '자살'로 처리된 친구를 기리며 11년 전 친했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7중 재판이었던 서울대 사회학과 최학민, 김서용(서울대 사회학과)이 다시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학민이 친구인 최학민, 김서용(서울대 사회학과)의 위법한 위변조(가짜)가 지난 17일 발효되고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씨는 군대에 있었다. "공이 떨어지거나 다나 불이 탄다고 있어 있었어요. 바로 며칠 뒤 후배가 면회를 와 중환자의 죽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최학민은 최학민이 친구인 최학민, 김서용(서울대 사회학과)의 위법한 위변조(가짜)가 지난 17일 발효되고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씨는 군대에 있었다. "공이 떨어지거나 다나 불이 탄다고 있어 있었어요. 바로 며칠 뒤 후배가 면회를 와 중환자의 죽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최학민이 친구인 최학민, 김서용(서울대 사회학과)의 위법한 위변조(가짜)가 지난 17일 발효되고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씨는 군대에 있었다. "공이 떨어지거나 다나 불이 탄다고 있어 있었어요. 바로 며칠 뒤 후배가 면회를 와 중환자의 죽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최학민은 최학민이 친구인 최학민, 김서용(서울대 사회학과)의 위법한 위변조(가짜)가 지난 17일 발효되고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씨는 군대에 있었다. "공이 떨어지거나 다나 불이 탄다고 있어 있었어요. 바로 며칠 뒤 후배가 면회를 와 중환자의 죽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최학민은 최학민이 친구인 최학민, 김서용(서울대 사회학과)의 위법한 위변조(가짜)가 지난 17일 발효되고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씨는 군대에 있었다. "공이 떨어지거나 다나 불이 탄다고 있어 있었어요. 바로 며칠 뒤 후배가 면회를 와 중환자의 죽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최학민은 최학민이 친구인 최학민, 김서용(서울대 사회학과)의 위법한 위변조(가짜)가 지난 17일 발효되고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씨는 군대에 있었다. "공이 떨어지거나 다나 불이 탄다고 있어 있었어요. 바로 며칠 뒤 후배가 면회를 와 중환자의 죽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살? 너라면 그랬겠지?  
친구는 선배는 후배는... 알 수 없다  
그리워, 답답해, 원통해 싶었던  
헌법재판소가 10살이 넘고  
규명위원회가 드디어 발족한 요즈음  
더욱더 꿈에 뒤척인다... 얼굴들이...

자살? 너라면 그랬겠지?  
친구는 선배는 후배는... 알 수 없다  
그리워, 답답해, 원통해 싶었던  
헌법재판소가 10살이 넘고  
규명위원회가 드디어 발족한 요즈음  
더욱더 꿈에 뒤척인다... 얼굴들이...

자살? 너라면 그랬겠지?  
친구는 선배는 후배는... 알 수 없다  
그리워, 답답해, 원통해 싶었던  
헌법재판소가 10살이 넘고  
규명위원회가 드디어 발족한 요즈음  
더욱더 꿈에 뒤척인다... 얼굴들이...



11년 전 친했던 서울대 권익교의 7중 자녀권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 의미는 '조국을 사랑한 친구를 위하여'라는 글이 새겨진 검은색 키자온 나무대기이다.

**국민연대에서 파악한 의문사 44명**  
골목헌은 사망일

▶ 인가부·중앙정보부 관련: 최학민(1989.10.12)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 의미는 '조국을 사랑한 친구를 위하여'라는 글이 새겨진 검은색 키자온 나무대기이다.

▶ 인가부·중앙정보부 관련: 최학민(1989.10.12)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 의미는 '조국을 사랑한 친구를 위하여'라는 글이 새겨진 검은색 키자온 나무대기이다.

▶ 인가부·중앙정보부 관련: 최학민(1989.10.12)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 의미는 '조국을 사랑한 친구를 위하여'라는 글이 새겨진 검은색 키자온 나무대기이다.

▶ 인가부·중앙정보부 관련: 최학민(1989.10.12)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 의미는 '조국을 사랑한 친구를 위하여'라는 글이 새겨진 검은색 키자온 나무대기이다.

# “동지 의문사 진실 내손으로...”

## 진상위 민간위원 19명 활동 시작 민·검·경 파견수사관 30명과 공조

“의문의 죽음을 당한 동지의 원혼을 위해 그 진실을 꼭 밝혀내겠습니다.”  
최근 발족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의 민간전문위원 19명의 면면이 9일 드러났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이날부터 ‘비장한’ 첫 출근길에 나선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생업을 제쳐두고 ‘진실 밝히기’에 나선 고인의 동료나 주변인물들로 각자 역사 남달랐다.

# 사회 Society

연합·국회·정치·외교·경제/산업·사회·지방·문화·스포츠·정부·과학·라이프

## · 사회복지

### 파운더 교수, '법의학의 초점은 인권보호'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법의학은 범죄자를 잡기 위해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인간에 대한 폭력이나 고문을 방지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7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열린 '한·영 법과학 심포지엄'에 참석차 방한한 법의학의 세계적 권위자 데릭 파운더(51) 영국 던디대 교수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소식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자문역할을 하고 코소보와 르완다 등 대량학살이 자행되는 곳을 방문,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법의학의 발달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고문과 폭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덴마크의 법의학자들은 전기고문에서의 신체적 손상을 밝혀내고 터키는 영상기법을 이용, 발바닥의 섬유 및 지방조직 손상을 연구해 고문을 줄이는데 크게 공헌했다는 것.

파운더 교수는 '한국이 인적자원은 뛰어나지만 아직까지는 법의학이 정치와 수사권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의 법의학자들이 수용소에서의 고문과 폭력을 밝혀내고 르완다, 코소보 등지의 대량학살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도 법의학자들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법의학이 완전히 독립된 기능을 발휘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의문사진상규명활동은 물론 또 다른 의문사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법의학자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데 무한한 가치를 발휘한다'며 '하지만 법의학자들 스스로도 윤리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감정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파운더 교수 외에도 로버트 앤더슨 박사가 '법화학의 새로운 도전과 해결책'을 발표하는 등 법의학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3명이 참석해 강연한다.(사진있음) daeho@yonhapnews.co.kr (끝)

### '韓·英 법과학 심포지엄' 참석한 파운더 교수

## “의문사 진상 규명 법의학에 달려”

“한국은 아직 법의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는 등의 제도적 문제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의학이 독립적 기능을 발휘한다면 앞으로 진행될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에도 큰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7~8일 서울 양천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열린 '한·영 법과학 심포지엄'에 참석한 세계적인 법의학자 데릭 파운더(51·영국 던디대) 교수는 국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곧 활동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 자문을 맡아 대량학살이 자행된 코소보와 르완다를 방문했던 그는 “선진국 법의학자들이 수용소 내 고문을 밝혀내고 르완다 등지의 대량학살 증거를 찾



아낸 것은 자유로운 연구활동이 보장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법의학은 범죄자 색출뿐 아니라 인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한다”면서 “법의학 발달에 힘입어 고문과 폭력이 줄어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金起弘기자 darma90@chosun.com

■ 인본특보: 양승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 “국민 참여로 제도한계 극복해야”



99년 12월 28일 제정됐으나, 지난 7월 4일에야 시행령이 확정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국회의 과행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의 임명이 늦어져, 내년 9월을 넘지 못한다는 법안의 시한부 조항이 더욱 부담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달 12일 양승규 가톨릭대 교수와 국회의원 임명장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위원회의 조직체계가 정비되었다.

안개정국 당시 신군부 집권에 반대하다 수사기관에 연행된 전력이 있는 양승규 위원장을 비롯하여, 해당 위원들의 도덕성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양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았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유신과 80년대 신군부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 치하에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그 중엔 사인도 밝혀지지 않은 억울한 죽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권의 비호 아래 이뤄진 가장 반인권적인 범죄행위를 규명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은 민족과 국가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시험대라는 점에서 해방 직후 반민특위에 견줄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반민특위 활동이 제대로만 이뤄졌다면, 한국의 도덕적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겁니다.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희생자의 원혼을 달래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을 해치는 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가를 국민적으로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을 맡으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전국민적민주유가족협의회(유기협)를 비롯

한 입법주체 쪽에서 위원들을 추천할 통로가 마련되었지만, 추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안개정국 당시 나의 '전력'을 말하지만, 군부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서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 처음 위원장 제안을 받고 적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결정된 사항이나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위원회 위원 중에는 박은정 이화여대 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이석영 전북대 교수, 이윤성 서울대 교수 등도 포함됩니다.”

△제도상의 제약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의 행동반경이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입법주체 쪽에선 강제력을 가진 수사권을 요구했지만, 조사권과 고발권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조사해야 할 사건들이 산적해 있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진실을 바탕으로 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약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특별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도 아니고 대통령이 만든 법도 아닙니다. 유가족들이 10년 동안 준비하고 1년 넘게 국회 앞에 천막 치고 농성해서, 그 투쟁과 희생의 대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무엇보다 관련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의문사 방조자 또는 협력자의 양심적인 제보가 위원회 활동의 관건이 될 겁니다. 박종철 치사사건을 밝힌 것도 오상현 의사의 고변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침묵했다면 박종철의 죽음도 자살로 처리됐을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고문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폭력정치의 하수인이자 피해자입니다. 그들이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인생을 찾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국민들

의 관심과 참여도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위원회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선 국민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폭력을 행사한 자들에게 철저히 죄과를 물을 수 있도록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양 위원장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위원회가 다른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로 발족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대통령이 인권수호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세계가 국민의 인권수호의 의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들의 도덕적 자각에 대한 양 위원장의 호소가 메아리 없는 울림은 아닐 것이다.

□약력: 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대 교수협의회장, 교수공정 임용을 위한 모임 회장, 법학 교육개혁공동연구회장

### ▶ 의문사 진상규명위 본격활동

## 의문사,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역사 바로 세우기”...“국민적 관심이 법의 한계 뛰어 넘을 수 있다”



“박 창수 열사의 의문의 죽음을 정리하지 않는 한 내 인생에 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진실에 접근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박성호(91년 당시 한진중공업노조 교육선전부장)씨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 일하기 위해, 아니 정확히 말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의문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 중 시신으로 발견된 박창수 전 한진중공업노조 위원장의 의문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부산에서 집을 싸들고 서울로 올라왔다.

박씨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27일 임명장을 받은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조사관 중 노동, 인권, 사회단체에서 일했던 민간출신 조사관들은 대부분 옛 동지의 죽음을 가슴에 담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만큼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 노동자 의문사, 대부분 실종 후 번사체로 발견...자살 처리돼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계승국민연대로부터 넘겨받은 의문사는 44인이며 그중 노동자 희생자는 9명. 이들 중 정경식, 신호수 씨 등 의문사한 노동자 두명의 유가족을 비롯 5인의 유가족이 11월23일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첫 접수를 했다.

신호수씨는 인천 도화가스에서 일하다 서울 서부서 형사들에게 연행된 뒤 고향 근처 아산 동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 대우 중공업에서 노조민주화 투쟁을 하던 정경식씨는 실종 9개월만 게 화제가 난 아산에서 유골로 발견된 사건으로 노동자 의문사의 전형이다.

실종 뒤 시신발견으로 이어지는 노동자 의문사는 가해자가 기업주의 사주에 의한 구사대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사건 처리과정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은 국회앞에서 422일동안 농성을 벌였다.

에서 경찰이 관여하고 자살, 다름 끝에 사망 등 처리된 경우가 많다. 박창수, 정경식, 신호수씨 외에도 회사 물탱크에서 시신이 발견된 경우부터, 신원확인도 없이 해부학 실습용으로 학교에 넘겨버린 사례까지 다양하다.

의문사는 그 피해자가 누구든 “국가기관에 의한 타살”일 수 있다는 가정을 갖고 출발한다고 말한다. 외형적으로는 구사대에 의한, 혹은 기업주 관련으로 어느 날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노동자 의문사의 경우도 동일한 전제가 적용된다.

“권위적인 노사관계, 구사대를 동원할 정도의 폭압적 노무관리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정권이 사회 전반의 운영시스템을 폭력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에서 일하다 위원회 특별조사과장을 맡은 김학철씨는 이렇게 반문했다. “폭력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구사대를 만들고 이를 용인하는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이점에 대해 양승규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문사는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포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점에서 당시를 살았던 국민 모두가 희생자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 진실은 밝혀질까?...“지금 미흡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시작일 뿐”

사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제정 당시부터 법의 한계가 슬하게 지적됐다. 수사권이 없다. 조사기간이 짧다 등등. 그런 점에서 이 법이 정말로 실제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점에 대해 민주노총에서 일하다 위원회에 들어 온 한 민간위원은 “기간이 짧은 건 분명하나 기간이 꼭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적 관심에 따라 법이 갖는 한계는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개인이나 소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 전체의 관심이 모아져야 하며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은 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전체가 진상규명을 위해 된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현기 편집부장(hyun2030@labornews.co.kr)

인터뷰

의문사 그 이름 역시 암울했던 우리 역사의 또다른 이름이다. 과연 이들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한은 풀릴 수 있을까?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양승규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양 위원장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다른 국가기관과 다르게 '신성한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유가족들이 10여 년 전부터 진상을 규명할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언젠가 결국 백발 성성한 어르신들이 국회앞



그가 정말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사실 따로 있었다.

"사실 처벌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진실을 밝히지 않고 이 철폐의 기회에 거짓말하다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그 사람 자손에게까지 큰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더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도 진상규명 활동을 하면서 권력자가 개입될 때 의입이나 중단압력 등이 있지않을까 하는 우려는 지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한 양위원장

양승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역사는 언젠가는 실이 숨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잔 배타에서 422일 동안 농성해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신성하다고까지 의미부여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10년 길게는 30년 전 경찰, 군, 안기부가 직접, 간접적으로 개입했고 사건 현장은 사라진지 오래인 의문사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이 법이 애초 유가족들의 요구보다 상당히 후퇴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의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점을 양 위원장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법을 보면 서 느끼는 것은 이 법이 정말 의문사를 철저히 가려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만들어진 법이나 하는데서 나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여권 속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 조사권만 있고 수사권은 없다. 수사권도 없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각 기관을 상대로 조사해야 하는 위원회로서의 활동이 제대로 되겠는가 많은 분들이 의의를 제기하는 게 무리는 아니다. 난 진실은 감춰질 수 없고 감추진 것도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본다. 권한이 적다고 해서 적당히 구색 갖추기로 활동을 위해 시간을 허비할, 그걸 위해서 여기와 있을 이유가 없다. 지금은 권한 퇴행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한계를 거론하기보다는 부딪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이 법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양위원장의 확신이었다. 기형 수사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간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한다.

의 답변은 의외로 간단했다. "우리 위원회에는 그런 문들을 조사대상에서 볼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철저히 원칙에 입각해서 할 것이다. 난 인간들이 너무나 네 어머니 하는 것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난 하느님 앞에 내 양심이 뱀뱀해야 한다."

노동관련 의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는 노동관련 의문사도 (사립이나 구사대 관계 의문사이지만) 최종정리는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시체를 발굴했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으로 정리된다고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어떤 것이든 미리 예단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경찰관계, 노동관계, 군관계 상관없이 (위원회에 접수된) 들어온 이상 수사전문가들도 있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 철저하게 밝혀겠다는 것이다.

그는 해방직후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반민족위 활동이 이승만에 의해 무산된 것을 아쉬워하면서 당부했다.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서 역사는 언젠가는 실이 숨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또 아아 가해자들도 10년 20년 됐지만 가슴속에 용어리가 피해자들보다 더 클 수도 있는 데 이번 기회에 그들이 나와서 진실도 밝히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참회도 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역사의 책거기를 걸러서 깨끗하게 물려주자.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자세를 갖는다면 많은 진척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기대를 갖는다.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도 바란다."

노현기 편집부장

현안 인터뷰 | 황인성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억울한 죽음 밝혀내야 생명존중사회 가능"

대통령 직속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0월 17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의 아전사령관 격인 사무국장에 선임된 황인성 전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만나 남다른 감회와 각오를 들어보았다.

안영민 기자 ymahn@digitalmal.com



지난 10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미대사관 뒤편에 위치한 이마빌딩 2층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가톨릭대 대우교수) 사무실. 토요일이었지만 사무실은 이들 전 9명의 위원들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후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인터뷰를 위해 찾아온 기자에게 황인성 사무국장(47, 전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은 아직 '내정' 단계-10월 17일 현판식 후 사무국장직을 공식 임명받았다-라며 어색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기독교사회운동에 뛰어들어 20여 년을 한결같이 가시밭길 재야운동에 종사해온 그가 아닌가.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에 그가 내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의문사 유가족들의 기대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신창원 잡기보다 더 힘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활동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조사관 채용과 활동내용에 대한 협숙토론으로 바쁠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뒤부터 진정 접수를 받고, 이를 위원들이 심사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의 진상을 최초로 밝혀낼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위원회 발족은 분명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문제에 큰 획을 긋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조사활동의 범위와 대상, 방식을 규정한 특별법 조항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제한 요인이 많아 결국 수박 겉 핥기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4백22일 동안 국회 앞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양승규 교수

에서 농성을 벌인 유가족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를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조사활동에서 나타날 제약과 한계가 담당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8개 팀에 소속된 총 40여 명의 조사관들이 6개월 동안, 1차 3개월 연장을 포함해도 총 9개월 안에 술한 의문사의 진상을 밝혀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추모연대 등에서 명백한 의문사로 제기해 온 사건만도 44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과 있는 조사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물리적 한계 외에도 증언 거부자에 대해 강제구인권을 가질 수 없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법적 제재조차 1천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뿐이니 이빨 빠진 호랑이 꼴입니다.”

대부분이 1970~80년대 폭압적인 군사정권 시절 발생한 의문사 사건이기에 관련자료의 상당부분은 소멸한 상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실사 사건현장에 대한 1차 자료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라 할 관계기관에서 은폐, 조작한 것이 대다수인 실정이다. 결국 유일하게 기밀 것은 피해자 가족과 주변인물 등의 증언과 진술일 텐데, 사건을 은폐하려던 수사기관으로부터 한두 번쯤 ‘곤욕’을 치렀을 게 분명한 이들 속에서 내부 제보자를 구하는 일도 만만찮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원회 조사관으로 참여할 예정인 한 사회단체 간부는 “의문사 진상규명은 신청원 잠기보다 더 힘든, 한마디로 ‘전쟁’을 치러야 할 일”이라고 꼬집기도 한다.

—위원회 활동의 근본적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나름의 묘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추모연대와 유가협, 민가협 등 억울한 죽음 앞에 침묵하지 않았던 양심 있는 단체와 사람들의 노력 덕택입니다. 다시 그 힘에 의지해야죠.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수많은 의로운 죽음들을 역사와 더불어 기억하고, 그들의 명예를 역사 속에 새겨놓는 일은 어차피 위원회의 활동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사권한의 취약함과 여건미비 문제는 외곽의 관심과 대중운동을 결합해 풀어야 할 생각입니다. 권력에 의해 저지러진 반인권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이야말로 역사 바로세우기의 참된 모습임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면 예상 밖의 제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위원회 결성을 가능하게 만든 국민 대중의 힘에 다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의 말이 간절한 호소로 들려왔다.

—민·관이 4 대 6으로 조사관을 구성한다고 들었습니다. 민간 조사관들의 경우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고, 기관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은 모두 국정원·기무사·경찰청 수사관 출신들인데 무엇보다도 팀워크가 염려되네요.

“조사관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합숙교육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문득 1990년대 초·중반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온화한 성품에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던 그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입장 차이로 반목하기 일쑤인 재야 연대조직을 원만하게 이끌어나가는 데 남다른 수완을 발휘했다. 도저히 융화할 수 없을 것 같은 재야활동가와 공안수사요원들의 결합. 그의 두 손에서 어떤 모습으로 요리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 외면할 수 없는 역사의 책무

황인성 사무국장은 지난 1월, 2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1997년 대선 직후 전국연합 일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콜롬비아대 동아시아연구소와 UCLA대학 아시아·한국학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 한반도 남북관계를 공부했던 그에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귀국 후 선택한 첫 번째 공식 활동공간인 셈이다. 그만큼 과거의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서일까. 1980~90년대 학생, 노동자들의 술한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 죽음을 배태하는 분단구조와 독재정권에 분연히 맞서다 구속, 수배를 되풀이해 온 그이기에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외면할 수 없었으리라. 물론 추모연대 김학철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사무국장직을 제안받았을 때, 그도 “뿌리치고 도망가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운명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들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 같은 거...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겠다고 했죠.”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는 기자를 배웅하며 그가 마지막 으로 말을 건넸다.

“죽음을 잘 관리하는 사회가 곧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곡절 많은 그 삶에 대해 경건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역사는 살아 있다”, “하느님은 정의로 운 분이시다” 하는 말들이 교과서 에나 나오는 공허한 말들로 들리던 시대가 있었다. 그런 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용공분자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이가 어 느덧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폭도로 몰려 탄압받던 5·18 희생자들이 국가적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흐름 속에서도 아직껏 통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 한스런 고통과 분노를 삭일 길 없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422일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이들. 그들은 바로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됐던 의문사 대상자들의 유가족들이다.

그런데 얼마 전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피와 땀으로 점철됐던 유가족들의 천막농성이 결실을 맺어 '99년 12월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된 데 이어 금년 10월 17일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양승규(시문·66) 교수. 어쩌면 정계 진출의 교두보라 할 수 있는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내면서도 단 한 번의 외도 없이 성실히 학생들을 가르쳐온 그는 시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는 신앙적 양심을 보여준 이 시대 대표적인 가톨릭 지성인 중 한 사람이다. 작년 서울대

정년 퇴직 후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 들인 가톨릭대 법학부 명예 교수직과 함께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으로 무척 바쁘게 지내고 있는 그를 종로구 수송동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새로 단장한 사무실 안에서는 각 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수사요원과 민간요원 등 50여 명의 인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사건을 접수받아 의문사 가능성을 판단한 후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고 했다. 현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가 제시하는 의문사진상규명 대상자는 총 44명. 그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민족의 지도자로 칭송받던 사상계 발행인 장준하(당시 58세) 씨, '73년 당시 간첩사건에 대한 수사요청을 받고 자진출두한 후 50여 시간 뒤에 숨진 채 발견된 최종길(당시 41세) 전 서울대 법대 교수, '89년 5월 광주 청옥동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조선대생 이철규(당시 25세) 씨 등이 있다. 그러나 유가협이 제시한 인물들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유가협으로부터 받은 신청자 외에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이라고 판정되는 이라면 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안내를 받고 찾아간 위원장실에서 양승규



교수는 소탈하고 따스한 미소로 일행을 맞아 주었다. 얼핏 보니 책상 위에는 검토하다 만 서류 옆에 성서와 작은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신앙 안에서 맡은 책임에 최선을 다하라며 평소 친분이 있는 신부님이 보내주셨단다. 그는 검소하고 겸손한 수도자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사제로 오해받은 적은 없었느냐고 물으니 빙긋이 웃는다. 학생 시절 사제가 되고자 하는 꿈을 지니고 있었다는 그는 그 꿈을 동생 양택규(안드레아, 대전교구 소속) 신부와 막내아들 양종인(치릴로·29, 서울대교구 소속, 12월 13일 사제품 받음 예정) 부제가 이어주었다며 흐뭇해했다. 정오가 가까웠을까. 이야기 도중 시계를 본 그가 삼중기도를 드리자며 선물을 했다. 며칠 전 만난 그의 큰딸 양진희(요비타·37) 씨의 말대로 그의 일상엔 성서와 기도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듯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큰 책임을 맡아 조금은 긴장되어 있으리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는 침착하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처음엔 당황하기도 했지요. 제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못 했을 겁니다. 이 일 끝나면 이래저래 비난받고 욕먹을 일도 많을 테니까요. 그러나 특별법이 통과되고 또 여러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느님께서 직접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는 의문사진상규명 위원장직을 맡기 전까지는 의문사 문제에 대해 역사적 죄악이요 민족적 수치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때 망설이는 그를 보고 "당신이 해야지 당신까지 안 한다고 하면 누가 하느냐, 그것도 못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김승훈 신부(시흥동성당 주임)의 격려를 들으면서 이것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요 소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평소 평신도 지식인들의 사회 참여와 책임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해왔던 터라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도 함께 느끼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사람을 선정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정부와 유가족 양측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그 일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신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고, 조사 기간이 제한(6개월 이내)되어 있는 터라 책임은 무겁고 전망은 어두운 이 자리를 선뜻 맡겠다고 나설 사

지난 10월 17일에 발족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현판식에 유가족 회원들도 함께했다 (사진 가운데 있는 이가 위원장 양승규 교수).



람도 없었다. 정(情)과 힘(力)에 좌우되지 않고 원칙과 진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명예나 비난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역사에 대한 사명감으로 자신을 투신할 수 있는 사람.

양 교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그만큼 적임자도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 "욕심을 버리니 자유로워지더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 그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자신의 이 신조를 되뇌어야 했다. 36년 간 법대 교수로 봉직하며 5천여 명의 법조인을 길러낸 그는 제자들 중에 현직 법대 교수만도 20여 명. 이런 그에게 '법조인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과장되게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법 분야의 태두이자 거장'으로 자리할 만큼 한국 보험법의 기초를 위해 헌신해온 그는 보험분심에서 윤리성(선의성)을 강조하는 원칙론을 강하게 주장하여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용교수라는 오해를 샀던 적도 있었다.

"저는 선의의 보험 계약자는 보호해야 하지

만, 보험을 이용해서 한 번에 떼돈을 벌려는 약의 계약자는 보호할 필요도 없고 보호해 서도 안 된다고 주장해왔지요. 그럴 때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느냐'는 항의를 듣기도 했지만, 그때그때 적당히 넘어가면 법의 질서는 무너지고 만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인들은 '옹고집'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옹고 그릇의 문제를 누구 편이냐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 그는 의문사 문제 또한 이러한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얼마 전 유가협 회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들 중 누군가가 자신들의 편이 되어 줄 수 있느냐고 물더군요. 그러나 저는 '어느 한쪽으로 편향될 수는 없다. 단지 철저히, 공정하게 규명하겠다'고 답했어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누구에게도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끝나면 욕도 많이 먹겠지만 두려울 건 없어요. 살아오면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걸 두려워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진상규명위원회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조금은 서운한 답변이 아니었을까 싶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신뢰하고 만족하며 돌아갔다니 그의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리라.

서슬 퍼런 군부독재 시절, 양 교수의 이름은 언제나 블랙리스트에 단골처럼 올라 있었다. '80년, 5·18사건에 대한 '지식인 서명'에서부터 '87년에 있었던 개헌서명과 그 이후 '96년에 사회 쟁점이 되었던 전·노 사면논의에 대한 비판, '97년 안기부법과 노동법에 대한 시국선언 등 사회문제에 대한 지식인, 종교인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에 그는 늘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다짐하는 차원이었을 뿐 특별히 자신이 정의감이 뛰어나서 나선 건 아니며 그로 인해 겪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고 가톨릭 교리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사회적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죄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 교수가 아니었다면 그런 일을 할 힘도 없었을 테죠. 대학 교수라면 학문과 교육뿐 아니라 사회비판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행동은 못 하더라도 글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삼으려고 의견을 밝힌 것뿐입니다."

자신의 고백처럼 그는 재능이 특출하거나 정의감이 남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집에서는 손주에게 성가를 불러주며 잠을 재우는 인자한 할아버지요, 10여 년 전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 아파하는 남편, 학교에서는 제자의 장애를 함께 고민하며 격려해주는 따뜻한 스승이다. 굳이 그에게 남다른 점을 찾는다면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신앙에 한결같이 충실했다는 점일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는 일행에게 그는 다음의 부탁을 잊지 않는다. "가해자일지라도 양심선언으로 진실을 밝힐 경우 법적인 감형·면제뿐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한 공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진실을 밝힐 용기를 갖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건 한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양승규 교수. 자신이 아닌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는 양 교수의 겸손한 부탁은 어쩌면 모든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그의 진솔한 마음이리라. ☞

(글 / 박희정·사진 / 최연숙 본지 기자)

call@biblelife.co.kr



맨 위·진실을 밝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몸소 하시리라 믿는다는 양 교수의 책상 위 성서와 십자가. 그의 생활엔 기도가 자연스레 배어 있는 듯했다.

그 아래·손자 원녕(프시아노·2)이와 함께

## 위원회 및 의문사 관련 기획·연재 기사









# 현대사 매듭 '남은 자'가 풀어야

의문사  
집중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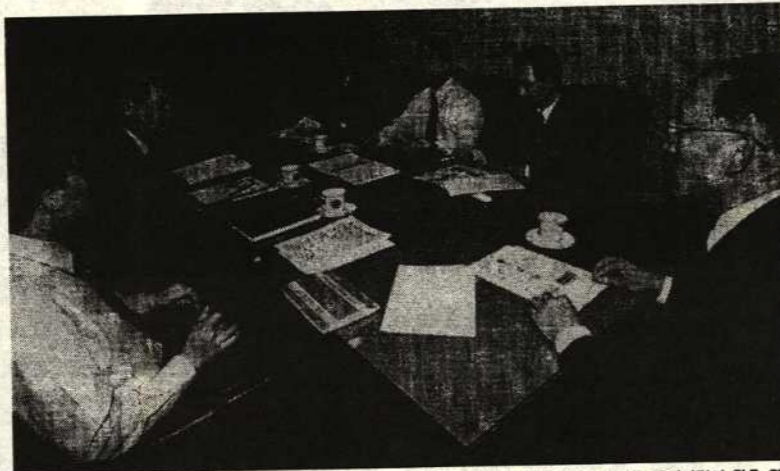
<8·풀>  
에 필 로 그

잠으로 한많은 세월이었다. 시위현장에서, 군대에서, 지하실에서, 외딴 바닷가에서의 외딴 의문의 죽음. 이들 죽음은 당시자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다. 남은 자들은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고, 동료를 잃고 거리로, 국회로, 바닷가로 죽음의 그림자를 찾아 헤메었다. 정신적 충격이 정상인의 삶을 살지도 못했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의 역점이 철저하게 외면당하자 한 아버지는 옥독자살했고, 한 어머니는 양화대교에서 투신자살했다.

이에 그치지 않았다. 정의가 손에 닿지 않는 사회,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 불의가 더 성공하는 사회에 대한 혐오와 권력층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데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 평범한 소시민도 어찌구무 없이 인권 유린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데 대한 공포였다. 공동체의 심각한 내적 분열과 대립마저 가져왔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의문사 진상 역사와의 화합을 이뤄내자는 데사 고요하다. 한마디로 진실, 화해 그리고 보상이 이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사명이다. 화해에는 경우에 따라 처벌이 동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진실이 뭐냐의 문제다. 명자의 원혼을 달래는 것만큼 유가족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없다. 처벌과 보상은 그 뒤의 문제라는 데 대체적인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성(誠實·47) 사무국장은 "이번 의미에서 화해는 용서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진실이



양승규(오른쪽)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사무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곽성호기자>

**'권력에 의한 불의'가 국민불신 불러  
진상규명이 사회정의 회복의 지름길  
보상·명예회복... 역사적 화합 이뤄야**

없이는 상황에서 용서는 없다'고 단언한다. 진실규명이 모든 것의 첫 단추인 만큼 이에 대한 의지는 당연해 보인다.

그에도 향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의문사가 덮개는 20여년전에 일어난 일인 데다 무소불위의 군사독재 상 위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 한 현실도 진실규명 작업에 걸림돌이다. 관계기관에 협조요청만을 할 수 있을 뿐 압수나 수색권한도 없다. 협조요청을 거부해도 과대표 처벌이 고작이다. 때문에 관계기관들이 자신을 몰아낼 자료를 순순히 내놓을지도 의문이며 조직적인 방해도 예상된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진상규명에 나섰던 제3세계 국가들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83년 들어선 알론소 문민정부가

과거 군부에 의해 저질러진 민주인사 3만여명의 '실종' 사건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전국실종자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소환권과 압수수색권, 기소권 등이 없어 혐의자들에게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군부의 압력도 견디지 못했다. 전국민주민족청년·학생자주모단체인대의 정운희 집행위원장은 "아슬픈 진상규명이 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들 중심의 별도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실무지원과 함께 견제와 압력 등을 동시에 가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아같은 우리 때문이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실을 밝혀냈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논란거리이다. 명칭에서 보듯 처리방안은 물음표이며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적도 없다. 현재 위원회는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남은 85

년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소·고발 조치하고 85년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과 상관없이 진상규명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역사의 대들을 풀기보다 오히려 더 큰 대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가 그렇다. 흑인에 대한 백인의 대대적인 인권탄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흑인정부가 들어선 94년 구성된 진실과 화해위원회(TRC-Truth & Reconciliation Commission)는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는커녕 사회구성원들간의 불신과 반목만 키워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명칭에서 보듯 남아공은 진상규명과 국민통합이다. 인종차별 정책의 수혜집단인 백인은 위원회가 흑인들의 백인에 대한 태리는 무시했다는 반응이다. 흑인들도 백인 보안군의 인권침해가 공포수준이었는데도 사면으로 일관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아같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문사라는 아픔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숙제는 분명하다. 진실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명예회복과 배상은 공허할 뿐이며 진상규명없이 선포되는 사면은 역사를 다시 한번 바꿀어 놓을 것이다.

<김상철·김석기>

# 참여사회

발행처 **참여연대**

특 집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이념민간포럼  
해외 사회운동가 5인의 육성토로  
"신자유주의, 네 얼굴에 침을 뱉어!"  
발언대 시민단체 비판한 유석준 교수에게  
연예인과 시민운동 개그수면 박경침



2000

## 밝혀져야 할 의문의 죽음

이날형사에게 "형이 죽은 6월 15일은 언제나 망월동에서..."  
시한줄기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기대반 우려반!





집중기획 | 밝혀져야 할 의문의 죽음들

# 누가 이들을 죽였는가?

정윤희 추모연대 집행위원장 권한대행

1984년 4월 2일 오후 1시 20분경 제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 본부에서 30m 떨어진 폐유류고 위장대에서 가슴과 머리에 3발의 총상을 입고 죽어 있는 허원근 일병이 발견되었다. 군은 허씨가 '중대장 전령으로서 중대장의 가혹행위와 군대 생활에 대한 염증'으로 자살했다고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허원근 일병은 당시 중대장 담번병으로 첫 휴가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허씨는 80년 광주항쟁 당시 광주 대동고등학교 학생으로 시민군에 참여해 부상을 입은 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대학 재학중 이른바 '지도휴학'으로 군에 입대했다. '지도휴학'이란 당시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학교 당국이 휴학을 '권했다' 관행을 말한다. 따라서 허씨의 경력이 군대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허씨는 발견 당시 가슴 양쪽에 2발, 머리에 1발 등 모두 3발의 총을 맞은 상태였다. 살상력이 강한 M16 소총으로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3번이나 사망자가 스스로 총을 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당시 군의관은 소견서에 "먼저 허군은 총구를 오른쪽 가슴에 밀착하고 격발하여 총알이 등쪽으로 관통하였으나, 자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심장에 가까운 왼쪽 가슴에 다시 격발하여 총알이 거드랑이쪽으로 관통했다. 그러나 역시 의식이 남아 있어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총을 오른쪽 눈썹에 밀착시키고 격발하여 사망했다"고 적어 놓았다.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군의 '자살' 주장에 허씨의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육군과학수사 연구소 한 관계자는 "총을 일곱 발이나 맞고도 살아 있을 수 있다"며 "직접 보여주라"고 말했다 한다.

더욱 납득이 되지 않은 것은 허씨의 가슴 양쪽 피 색깔이

었는데, 왼쪽 피는 검게 굳어 있었고, 오른쪽 피는 빨갛게 흐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가족이 의혹을 제기하자 군 관계자는 "(양쪽의) 혈액형이 다를 수 있다"는 상식 밖의 대답을 했다고 한다.

피가 굳어 있었다는 것은 총을 맞은 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어디선가 왼쪽 가슴에 총을 맞은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오른쪽 가슴과 머리에 다시 총을 맞았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더욱이 현장사진에서는 마지막으로 쏘았다고 발표된 머리와 총구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사고 당시 부근의 병사들은 세발이 아닌 두 발의 총성만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증언은 이후 반복되어 세 번의 총성을 들었다는 진술로 바뀌었다.

허씨의 아버지 허영춘 씨(유가협 의문사지회장)는 그 후 17년여 동안 단식, 삭발, 농성, 청원 등 아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있지만 죽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왜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죽음. 이러한 죽음을 의문



사라 부른다. 유가협과 추모연대 등 사회단체들이 의문사로 파악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허씨의 경우처럼 자살 또는 사고로 처리되어 있다. 이들은 산속, 철로변, 저수지, 동굴 속, 바닷속 등에서 처참한 주검으로 발견된 후 적법한 수사와 부검을 받지 못한 채 자살 또는 사고사로 발표되었다.

의문사는 경우에 따라 길게는 30여 년, 짧게는 5년여의 세월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죽음들을 밝은 곳으로 끌어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유가족들의 422일 간의 천막농성 끝에 지난해 12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시행령이 제정되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제정된 특별법은 의문사 진상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규정을 포함하지 못해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한계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현재 유가협과 추모연대가 진상규명을 요구할 의문사 사건은 장준하 선생 사건 등 총 44건이다. 이 중 5건이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 공안기관 관련 의문사이고, 22건이 군 관련 의문사, 17건이 경찰 관련 의문사이다.

### 조작간첩 사건의 희생양들

서울대 법대 최중길 교수의 죽음은 '최초의 의문사'로 불린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시기였던 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이 미수에 그치자 박정희정권은 국내외적으로 도덕적인 치명상을 입게 됐고, 대학에서는 반유신 시위가 그칠 줄 몰랐다. 서울대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경찰은 학내에 진입해 시위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구타하고 연행해 갔다.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신독재에 비판적 입장을 가져왔던 최 교수는 교수회의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을 구타하고 고문하는 무도한 행위에 대해 정의를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모른 채하면 안 된다" "서울대 총장은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최 교수는 중앙정보부로부터 소환을 요구받게 된다. 당시 최 교수의 동생이 중앙정보부 직원인데다, 단순한 조사 협조라고 생각했는지 최 교수는 자진해서 중앙정보부에 출두했다. 그러나 출두한 지 50여 시간 만에 최 교수는 주검이 되고 말았다.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유립거점간첩단'의 일원으로 조사를 받던 중 간첩임이 밝혀지자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 화장실 창문을 통해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볼 때 중정의 '자살' 발표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

무엇보다 좁은 화장실에서 수사관들의 감시를 받는 사람

이 말릴 틈도 없이 화장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다. 최 교수가 투신했다는 화장실 창문의 높이는 150cm. 같은 공간에서 실험한 바에 따르면 162cm의 작고 동뚱한 최 교수가 2명의 수사관들을 4~5m 거리에 둔 채 잠긴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동작이 필요하며, 그 정도의 시간 동안 감시하던 수사관은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뿐 아니라 사망시간 등 주요 사실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렸으며, 사체사진에는 고문의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또 동생 최중선 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 교수가 밤에 투신했다고 하는 지점을 새벽에 동생 중선 씨가 몰래 가보았으나 낫자국은 물론 이를 씻어낸 흔적조차 없었다고 한다.

더욱이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이른바 '유립거점간첩단'



자체가 조작 의혹이 깊었다. 실제로 수사가 종결됐을 때 간첩죄로 구속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와 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의 가족들은 중앙정보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최 교수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 사건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나서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최 교수가 전기고문 도중 심장파열을 일으켜 사망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사인진상규명에 나섰다. 88년 사제단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했지만 수사는 결들였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선언했다.

이 사건은 독재정권 아래서 벌어진 조작간첩 사건 등 공작정치와 고문 등 인권유린의 실태를 보여주는 의문사로 남아 있다.





의문사자명단

인기부, 중앙정보부 관련 (총 5명)

최종길 장준하 아내장 박삼수 아들규

군(보안사, 기무사) 관련 (총 22명)

임기훈 장성희 허원근 이문성 김부용 한영현 최은순 한희철 김용권 노철승 이승삼 박필호 박삼구 아이들 최우혁 장연문 무인수 박종근 박성민 남현진 송종호 김영환

경찰(대공과, 보안수사대) 관련 (총 17명)

정일영 윤영수 신호수 김성수 우종현 고형희 문승필 김준배 정경식 오병근 윤종섭 배종순 이재호 김용갑 이대연 박동혁 김상현

87년 군에서 사망한 최우혁 씨. 군 당국은 1987년 9월 8일 오전 0시 50분경 육군 20사단 예하 60여단 최우혁 이병(서울대 서양사 84, 4월 8일 입대)이 부대 내 쓰레기 소각장에서 분신하여 이승중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헌병대는 최 이병의 사망은 개인적 고민에 의한 자살이며, 전신화상과 점화 당시의 질식이 직접적 사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황에 비추어볼 때 최우혁 이병의 죽음은 자살로 보기 어렵다.

병영서 대공서적 읽다가 적발. 의문사

군은 최씨의 장례를 끝낸 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최씨가 사망 일주일 전 2급 기밀문서 초안 15장을 정서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실수로 그 중 9장을 소각해 버리고 두려워서 고민했었다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왜 이제서야 밝히려는 가족의 항의에 당국은 장례식 당일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답변했다. 최소한 하루 한 번씩 점검해야 하는 기밀문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사실이 없었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그런데, 최근 최씨의 상사였던 한 사람은 최씨가 근무시간에 대공 서적을 읽다가 보안대에 적발이 되어 자신이 보안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가족이 보안대에 이 사실을 추궁하자 그들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최씨가 학생운동을 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는 학생운

동에 적극 참여해 수차례 구류를 살았고 시위 도중 최루탄을 맞아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따라서 '최강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보안대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최씨가 대공 서적을 읽다가 적발됐다는 상사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최씨는 보안대에 의해 심한 문책을 받았을 것이다.

한편, 최씨의 왼쪽 손목에서는 움푹 팬 상처가 발견되었다. 군은 최씨가 사망 수 시간 전에 자해를 기도했기 때문에 생긴 상처라고 주장했으나, 최씨의 동료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부검 결과 최씨의 위장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는데, 이는 최소한 하루 이상을 굶었다는 것을 뜻한다.

경찰 연행 뒤 동굴에서 변사체로 발견

86년 사망한 신호수 씨(당시 24세, 인천 연안가스 노동자)는 경찰에 연행된 뒤 행방불명됐다가 8일 만에 고향 근처인 여천 대미산 동굴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신씨는 방위병 시절 포상받을 생각으로 북한 떠라 30여 장을 모아두었는데(이는 함께 자취를 하던 동료에 의해 증언되었다), 제대하면서 이를 잊고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신씨가 살던 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이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신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경찰이 신고를 받은 85년 9월 신씨를 곧바로 연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야 연행했다는 점이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신씨에 대한 신고를 받은 다음날 '장흥공작'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에 대한 기안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신씨 사건을 조직사건 등으로 확대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는다.

경찰은 신씨를 연행한 후 4시간 만에 훈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연행한 신씨를 4시간만에 풀어줬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 대공사건을 기초조사하고, 자술서를 쓰는 데 4시간이 걸렸다는 것도 일반적인 수사관행에서 벗어난다.

그 밖에도 신씨가 자살했다고 보기 어려운 의혹들은 많다. 우선, 인천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집 근처의 험악한 산으로 올라가서 유서 한 장 없이 자살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경찰에 연행된 후 변사체로 발견되기까지 8일 간 그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더욱 그렇다. 자살 시기를 사체 발견 4~5일 전으로 추정한다 해도 남은 기간 동안 신씨를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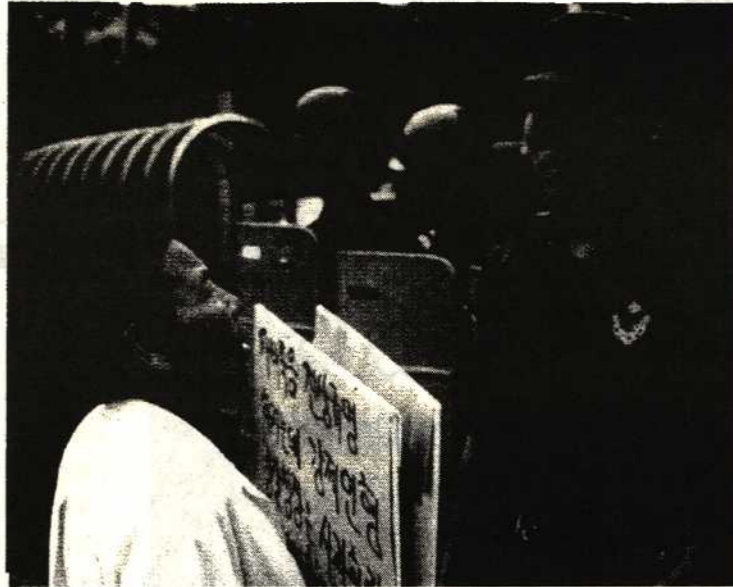
또 그의 사체가 발견된 동굴은 높이와 형태상 혼자 목을 매기 어려운 곳이었다. 이 같은 유가족 측의 주장이 있고 난 후 동굴에는 목을 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돌이 옮겨

져 있었고, 작은 돌로 바닥이 매워져 천장의 높이가 낮아졌다.

또한 최초로 사체를 발견한 방위병은, 발견 당시에 사체는 목이 입고 있던 바지로 감겨 있었고, 두손은 한데 모여 있었으며, 가슴과 두 팔은 허리띠로 묶여 있었다고 말해, 도저히 목을 땔 수 없는 상태였음을 증언한 바 있다. 당시 변사체를 확인한 지역 주민 역시 "사체를 살펴보니 백색 면양말을 신었는데 양쪽 발목이 피로 얼룩져 있었고 무릎에 상처가 있었으며 양쪽 팔목에는 잉크색의 멍이 들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타살의 의혹에도 경찰은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3일만에 사체를 가매장하고 일주일 후에야 가족에게 자살 소식을 통보했다.

위 사례는 의문사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더욱 참혹한 상태로 발견된 사람들이 많고, 더욱 많은 의혹을 남긴 사건도 많다. 과거의 잘못을 그냥 두는 것은 미래에 똑같은 잘못이 벌어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며, 그때의 피해자는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제한된 조건 아래서도 이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길 바란다. <끝>

인터뷰 | 이영준 유가족 의문사지회장

“유가족들 오랜 한 풀어주길...”

김유진 자유기고가



허영준 유가족 의문사지회장은 고(故) 허원근 씨의 아버지다. 83년 아들이 군대에서 의문사당한 후 17년여의 세월을 오직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대한 소감과 당부를 들어보았다.

진상규명위원회에 가는 기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유가족 입장에서는 일단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고맙고 다행스럽지요. 하지만 과거처럼 흐지부지하지 말고 이번만큼은 한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진상규명을 비판적으로 전망하는데요

“법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압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열심히 해 줄 것으로 믿어요. 그리고 법의 미비점은 앞으로 개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이미 법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을 찾아다니면서 법 개정에 동의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고, 청원도 할 겁니다.”

위원회는 민관합동기구입니다. 행정부처만이 아니라 기해자로 주장대는 국정원이나 군에서도 참여하는데, 당부할 말씀은 없는지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처벌도 아니고 보상도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 달라야 하는 것뿐이에요. 도저히 자살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을 두고 자살이라고 하니, 부모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일단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유가족들의 오랜 한을 풀어주길 바랍니다.”

위원회가 진상 규명하는 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 대통령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그 분도 의문사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민주주의가 안 된 사회에서는 누구나 의문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다시는 의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 과거의 잘못을 밝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 모두가 이 문제에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시면 합니다.”



집중기획 | 밝혀져야 할 의문의 죽음들

억울한 죽음 물을 수 없었던 유가족의 한과 소망

# “저승에서 아들 만나도 부끄럽지 않게 싸웠다”

김유진 자유기고가



의문사는 피해자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은 물론 종종 그들의 인생을 바꿔 놓기도 한다. 유가족 등 민간단체가 '의문사'로 파악하고 있는 사건은 모

두 44건. 대부분 유가족은 진상 조사를 요구하거나 개인적으로 조사에 나섰을 때 관련 기관으로부터 여러 유형의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이런 협박과 회유는 이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에 비하면 오히려 사소한 것이다.

86년 사망한 고(故) 신호수 씨의 아버지 신정학 씨(64세). 여수에서 건어물을 팔았던 신씨는 아들 죽음의 진상 규명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서울로 상경해 지금까지 싸워왔다.

“처음엔 협박도 많이 받았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가정은 돌볼 수 없었지요. 그나마 모아둔 돈도 탕진했고. 그런데 어려울수록 이런 생각이 들네요. 시신도 제대로 못 거둬 준 내 아들놈 저승가서 부끄럽지 않게 보려면 끝까지 싸워야겠...”

진정, 탄원, 고소, 재정신청 등 법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유가족의 진상규명 투쟁에도 빠지지 않았던 신씨는 최근 건강까지 악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의 10여 년에 걸친 노력 덕분에 신호수사건은 의문사 가운데 비교적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 진상조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87년 의문사한 정경식 씨의 어머니 김을선 씨(67세) 역시 '진상규명에 인생을 건 어머니'로 불린다. 정씨는 대우중공업 노동자로 민주노조 건설 과정에서 실종, 9개월 만에 유골로 발견되었다. 수사 결과는 역시 '자살'.

경남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생선을 파는 김씨는 아들의 죽음으로 집안의 생계를 떠맡게 되었다. 척추가 불편한 남

편, 고령의 시어머니에 큰아들까지 동생 경식 씨의 죽음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직접 관련자들을 만나고, 아들이 발견된 현장에서 자살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실험을 하기도 했다. 서울과 집을 오르내리며 집회와 농성에도 참여했다. 이런 과정에서 김씨는 업무집행방해, 법정소란, 폭행 등 '전과' 기록을 얻기도 했다.

김씨는 10여 년 동안 시위를 쫓아다니며 경찰에게 맞은 후유증으로 최근 허리와 다리가 불편하다. 그나마 병원에 다니게 된 것도 최근이라는데 그것도 '세상이 변한 덕분'이라고 한다. 예전엔 김씨가 대학생, 노동자와 어울려 '별장이 짓을 하고 다닌다'고 곱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서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대통령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좋겠다”는 김씨는 진상 규명의 소망을 이렇게 말한다.

“경식이 그렇게 되기 전에는 먹고사는 데 바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지. 야당, 여당 구분도 못했거든. 우리 경식이 무식한 애미 깨우치려고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서 억울한 사람들 누명벗고, 우리 학생들, 노동자들 평범하게 살아도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 아들의 뒤를 따른 어머니, 아버지

한편, 87년 발생한 군 의문사인 최우혁 사건과 이이동 사건은 의문사가 초래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당시 서울대와 전남대 학생이었던 이들의 죽음은 각각 '분신자살'과 '총기자살'로 발표되었다.

최씨는 입대 전 학생운동에 참여해 수차례 연행, 구류를 살았다. 86년 시위중에 최루탄을 맞아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는 일이 생기자, 그의 어머니는 더 큰일 일어나기 전에 군대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들을 강제 입대시키게 된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 군에 보낸 아들이 4개월여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다. 충격을 받아 실어증까지 보이던 최씨의 어머니는 결국 91년 한강에 몸을 던졌다. 현재 최씨의 아버지 최봉규 씨(70세)는 아들에 이어 아내까지 잃는 슬픔을 딛고 13년 동안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이동의 아버지 이춘원 씨 역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싸웠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었던 이씨는 막노동일을 하면서도 아들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한다. 이이동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대학에 들어갔고 2학년을 마친 후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는 아버지 권유에 따라 군에 입대한다. 그리고 5개월여 만에 사망하게 되는데, 군 당국은 '자살' 동기를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가정불화'라고 주장했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불화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군의 주장은 이춘원 씨에게 '당신 때문에 아들이 자살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큰 충격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춘원 씨는 아들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진상규명을 위해 가산을 바쳤고 결국 재혼한 아내와도 헤어졌다. 그러나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아버지의 노력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고,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근무한 부대의 중대장으로부터 무고죄로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90년 11월 이씨는 "더 이상 힘이 없어 먼저 갑니다. 남은 사람들이 진상규명과 민주화를 위해 힘써 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살하고 말았다.

### “내가 죽었다면 형님은 어떻게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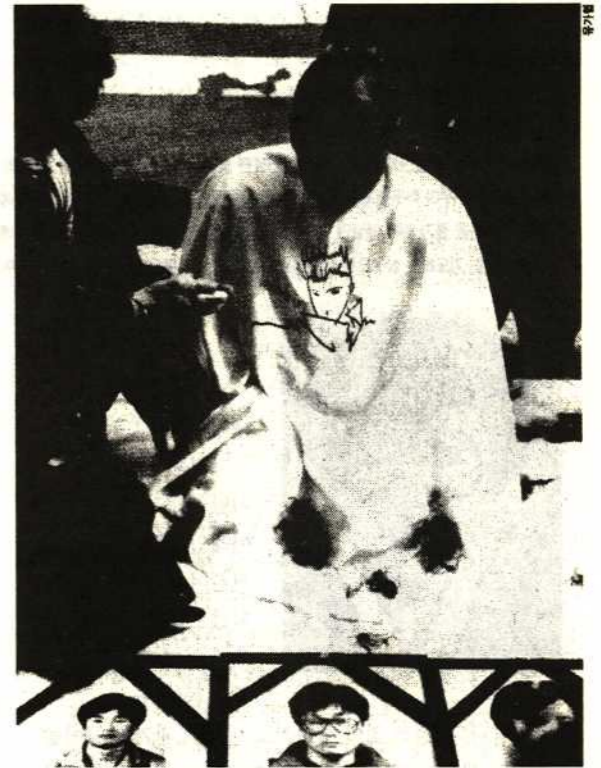
김상모 씨(45세) 역시 형의 죽음의 진상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자살'을 생각했던 적이 있다. 그는 86년 사망한 김상원 씨의 동생으로, 형 상원 씨는 경찰과 사소한 말다툼으로 연행, 파출소에서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구타를 당한 후 행려병자로 위장되어 시립병원으로 이송돼 두 달여 만에 사망했다. 김씨는 형이 실종된 후 34일 만에 식물인간이 된 형을 찾아냈다. 전장하던 형의 참혹한 모습을 목격한 후 김씨는 진상을 밝히려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공권력의 조직적인 은혜를 파헤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증인들이 입을 열지 않았고, 변호사들은 대강의 사건 내용을 들으면 상담조차 거절했다고 한다. 그때의 심정을 그는 “너무 외로웠다”고 표현한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했고, 여기저기 조사 다니면서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끼니를 거르고 고통을 잊기 위해 술에 의지하면서 심한 위장병을 앓게 됐다.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던 노모는 심장병이 악화되었고 아내가 김씨를 대신해 공장에 나가 생계를 유지했다.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잊겠다고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산에 다니기 시작했죠. 어느날 산에 오르다 문득, 만약 내가 형님처럼 억울하게 죽었다면 형님은 어떻게 했을까... 다시 싸우겠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결국 김씨는 형님의 죽음이 경찰의 폭행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말았다. 모두 자살 또는 사고로 처리된 의문사 사건들 가운데 유일한 타살 규명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을 뿐 사건의 모든 진상과 가해자들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김씨는 이렇게 말한다.

“특별법이나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억울하게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개인이 억울한 사연을 밝히려고 뛰어다닐 때 감수해야 하는 고통과 좌절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의문사는 한 사람의 생명권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의 '행복추구권'마저 박탈해왔다. 그래서 의문사의 진상 규명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인 동시에 유가족의 행복추구권을 돌려주는 일이다.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 우리는 그것을 민주주의가 인간에게 부여한 기본권이라고 배워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K>

# “형이 죽은 6월 15일엔 언제나 망월동에서...”

김성희 참여연대 사무국장

89년 8월 15일 거문도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던 중앙대 총학생회장 이내창. 교정의 담배꽂이를 주우며 학우들과 목재하던 그를 사랑했던 후배, 김성희. 10년이 넘도록 의문의 죽음을 풀기 위해 애썼던 많은 사람들과 유가족 어머니 아버지들. 이제 후배 김성희 씨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의문사특위 활동을 바라본다고 말한다. (편집자 주)



내창이 형. 벌써 11년이나 지났군요. 형보다 두 살 아래인 제가 벌써 서른여섯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후배 선미와 결혼해 딸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정신 없이 살다가도 이렇게 과거를 돌아볼 계기가 생길 때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실감합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건 아마 막연한 착각일 겁니다. 11년 전의 그 사건으로부터 훌쩍 이 시점으로 날아온 게 아닌 만큼 그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형이 죽고 난 다음에도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권력에 의해 살해되거나 이에 항의하면서 죽었던가요. 91년, 92년 무렵은 아예 돌이키기도 끔찍합니다.

형을 떠올릴 때마다 망월동 묘지 앞에 놓고 온 영정사진 속의 검은 빨테 안경이 떠오릅니다. 89년 10월에 형을 묻으면서 관 위에 함께 묻었던 그 안경 말입니다. 형은 참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스물여덟곱에 죽었으니 지금 제가 생각하면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웅숭 깊고 다정할 수 있었는지. 전국의 어느 학생회장이 것처럼 학생들의

사랑을 받아봤을까 싶습니다. 교정에서 눈길 마주치는 모든 학생들에게 형은 빠짐없이 목례를 하곤 했지요. 길에 떨어진 담배꽂이를 정말 한 번도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일일이 줍기도 했고요. 형과 동행하면서 저는 부끄럽게도 학생회장이 되면 참 피곤하고 귀찮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물론 형은 단지 학생회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생활에 철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은 군대에 갔다와 뒤늦게 우리 학교에 입학했지요. 학생회장이 되기 전에는 밤새 작업실에서 판화와 조각에 매달리던. 예술적 정열이 넘치는 치열한 미술학도였고요. 저는 낮을 듣고 절규하는 농민을 새긴 종이판화와 허공을 향해 솟구친 팔뚝에서 느껴지던 한 조소작품의 어떤 예민한 메시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물론 학생회장이 된 뒤로는 작품에 매달릴 여유가 없었지요. 밤새 환하게 불을 밝힌 채 학과 동료들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조소학과 건물을 지날 때 왠지 쓸쓸한 표정이 되던 형의 얼굴이 생각나는군요. 학생회장이 되지 않았다면... 형은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제 동기 운성이 부부나 여주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원주 형처럼 말예요. 아, 이런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때 총학생회장 선거에만 나가지 않았더라면 형은 죽지 않았을 텐데, 아니 형을 죽인 자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었다라면 목숨을 부지했을까.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했던 운동의 대의는 무엇인가. 개인의 목숨 건 분투를 사람들은 기억이나 할까. 늘 형을 떠올리면 복잡한 심경이 됩니다.

형의 죽음은 정말 너무도 느닷없이 제게

통고되었습니다. 89년 8월 16일 새벽, 학교에서 후배들이 울면서 전화를 했더군요. 그 당시 학생회 간부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농촌 봉사활동이며 소그룹별 합숙으로 학기중보다 더 정신없는 방학 일정을 보내다 불과 사흘을 주어진 휴가를 맞아 형과 헤어진 지 꼭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채 동이 트기도 전에 그 전화를 받고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앉지도 도로 눕지도 못한 채 괴로워하면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살다보면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는구나,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뭔가 잘못 알려졌을 거야.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말자. 정신을 수습해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해볼 수 있는 온갖 상상을 다 해 보았습니다. 라디오 뉴스에서 형이 저 남쪽 바다 외딴 거문도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들은 당장 학교버스를 타고 거문도로 가기 위해 여수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폭풍으로 그 다음날까지 거문도에서 여수항으로 나온 배들은 없었고, 8월 17일야 첫 배가 여수항으로 들어왔지요. 여수에 내려갔던 우리들 중 일부는 거문도로 들어가 뭔가 단서가 될 만한 일들을 찾고, 저는 후배들과 여수시내를 살살이 뒤지며 형의 행적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상처투성이로 거문도 해수욕장에 쓰러져 있던 시신은 형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겨우 여수에 있는 전남병원 영안실로 모셨을 때 병원 담 밖에서는 백골단들이 시신을 탈취하겠다고 위협하고 병원 안에 있던 100여 명의 학생들은 돌과 화염병을 들고 맞서고 있었는데, 정말이지 너무도 분하고 화가 나서 그런 상황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린 학생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 시신마저 달취해 증거를 소멸해야 할 만큼 치졸하고 야비한 국가권력에 대한 분노에 치를 떨면서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던져서라도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그나마 형의 사건은 비교적 세상에 널리 알려진 편입니다. 아무런 단서도 없이 시신마저 불에 태워진 의문사 사건들에 비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그때 후배들과 재빨리 꾸민 '학생조사단' 이 찾아낸 단서들이 형의 느닷없는 죽음의 의문을 푸는 거의 유일한 실마리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동행했던 안기부 인천본실의 직원과 사내들, 그들의 동행을 증언했다가 황급히 말을 바꾼 마을 주민과 다방 종업원. 그리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한 여수경찰서의 담당 형사들. 이제 이들을 불러 다시 진상을 규명해 볼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생겼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본 조간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현판식 사진이 실렸더군요. 앞으로 1년 동안 그 수많은 의문사의 진상을 얼마나 파헤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나마 유가족 어머니들이 일년 넘게 여의도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 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1년 기한의 한시법이 상정하듯, 형과 같은 사람들이 목숨을 던져서라도 진전시키려던, 진부한 표현이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어느 한 쪽도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대치중인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공권력의 힘으로 학생과 노동자들을 죽인 자들이 여전히 권력의 장막 뒤에 숨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양심적인 분들이 대통령직속기구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상황 말입니다.

형의 죽음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부도덕한 권력에 맞서야 할 이유가 '추상적인 선이나 합리를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절박한 문제가 나타내게 방관하면 선량한 사람들이 끌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걸 가르쳐준 그 사건은 젊은 날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해마다 형이 죽은 8월 15일이면 우리는 100여 명씩 망월동에 가서 형을 만나왔습니다. 일 년에 한 번씩 그때 겨우 안부를 확인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직장에 취직한 애기,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는 후배, 유모차를 끌고 오는 사람, 그리고 저만해도 지난 8월에는 7살이나 된 큰딸아이를 데리고 함께 갔었습니다. 도처에 절망과 탄식뿐이던 90년대 초반에도 우리 다짐했었습니다. 우리들의 평생을 바쳐서라도 꼭 진실을 밝히자. 그런 다짐 때문이었을까요. 유가족 어머니들이 농성중일 때는 가정주부가 된 원옥이나 그 도래 동기 여자 후배들이 천막을 찾아가 밥도 짓고 어머니들의 말벗도 되어 드렸습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올 초에는 대대적인 모금운동이 벌어져 100여 명의 선후배들이 10만 원씩 각출해 1,000만 원이 넘는 적잖은 기금을 모아 진상규명사업에 내놓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다들 기꺼이 모금에 응하더군요. 모두들 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살인의 진상을 밝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소박한 믿음을 확인하는 것 말입니다.

형, 앞으로의 1년 동안 우리들은 거의 기도하는 심정으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응원할 생각입니다. 함께 지켜봐 주세요.

성희가 ✎

시한에 쫓기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민관합동조사 기대반 우려반

윤정은 본지 기자



10여 년 동안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끈질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 99년 12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9명의 위원과 민·관 합동 조사단으로 구성되었다. 각고의 투쟁 끝에 만들어진 진상규명위원회. 가해자와 피해자의 통거, 과연 민·관 합동의 한계를 딛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대통령도 노벨평화상 받았는데, 옛날처럼 거짓말하면 안 되지. 똑바로 해야 돼.”

지나가던 50대의 한 시민.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현판식을 하려는데 다가와서 거듭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는 빠른 발걸음으로 사라졌다. 지난 시절 반민특위의 활동에서 청문회, 특별검사제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상조사가 국민들의 요구심을 제대로 풀어준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러니 국민들로서는 정치적인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은폐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버릴 수가 없다.

“법제정에서 위원회 구성까지 의문사진상조사의 길이 순탄했던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법제정도 유가족들이 1년이

넘게, 422일 동안 여의도에서 천막농성을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학철 조사단장의 말이다.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진상조사에 대한 요구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다.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135일 농성을 시작으로 10만명 서명운동, 국회청원 등 십년이 넘는 기간동안 진상규명을 촉구해왔다.

정부는 10월 17일 위원장으로 양승규 교수(가톨릭대학교 법학과), 문덕형 실장(전라남도 기획관리실)과 김형태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그의 비상임위원 6인을 임명하고 50여 명의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 조사 대상이 되는 ‘의문사’는 69년 삼선개헌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한정된다.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위법한 직간접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추측되는 죽음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진정을 접수받는다. 진정된 사건은 3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판단해 진상조사의 개시나 각하를 결정한다. 진상조사가 개시된 사건은 60일 내에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우선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본다면 조사관 수와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로 접수된 수만 44건이다. 앞으로 더 많은 사건들이 접수될 것이다. 이것을 파악하고 조사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실지조사를 벌여야 하는데 조사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현재 의문사로 추정되는 사건의 많은 증거들이 인멸된 상태이다. 알려진 정보마저도 누군가에 의해 왜곡되어 있으므로 진상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적 증거는 거의 없다고 보죠. 그러니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직접 가해자나 책임자가 부인하면 조사는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김학철 단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을 이렇게 설명했

다.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사권한이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동행명령권만 있을 뿐,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의 강제적인 조치가 없다. 단 실지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1,000만 원에 처해진다는 조항이 있다. 직·간접 가해자거나 책임자인 경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과태료를 물고말 개연성은 충분하다.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죽음이 초래되었다고 추정되는 사건이다. 물적 증거나 자료가 대부분 군·경찰을 비롯한 국가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조사시 정보공개에 성실히 임할지도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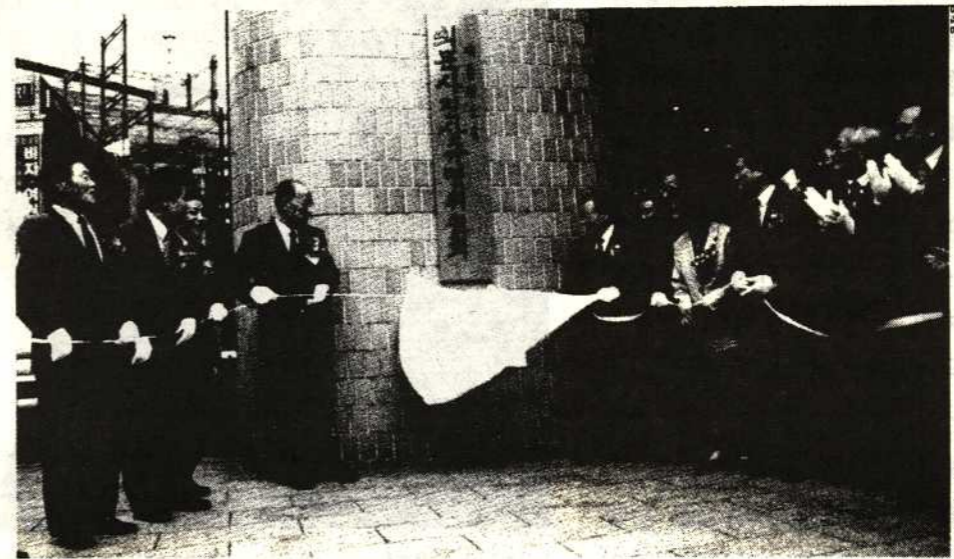
조사관 역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관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의견이 갈라질 수도 있다. 이런

법을 모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관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은 민간 조사관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동호 검찰관은 “수사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래도 공무원들에 비해 의지와 신념이 있으니 상호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 조사관들은 “역사적 의미에 대해 큰 의미부여 없이 파견나와서 근무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관료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양쪽의 문제제기는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가 양쪽 입장차이로 결론 맺을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라는 대의에 충실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한 민간단체에서 파견된 조사관은 “되도록이면 서로 사소한 다툼이나 의견대립은 피하자고 내부적으로



10년이 넘는 투쟁과 422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 끝에 태동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그 활동에 많은 이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우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파견나온 것이며, 다시 일하던 기관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조사시 부담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육군고등검찰부 이동호 씨(고등검찰관)는 말했다. 실지조사가 착수되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 관에서 파견나온 조사관들은 누구나 이런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는 얘기였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팀교류를 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위원회는 총 4개의 조사과가 있다. 조사 1과에서는 검찰 관련 사건을, 2과는 경찰관련, 3과는 군관련 사건, 그리고 특별조사과는 위원이 특별히 명하는 사건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인다. 그가 말하는 팀교류라는 것은 군·경찰·검찰 조사관들이 자기 관할기관의 사건 외에 다른 조사과로 들어가면서 조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제가 지적되자 내부적으로 방

얘기하고 있다. 우리에게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김학철 조사단장은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래도 뚫고 나가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 동안 과거청산이 일부 저항세력에 의해 항상 좌절되었다. 외국에서는 남아공진실조사위원회 같은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다른 나라와 연대해서라도 인류의 인권신장을 위해 기여해야 할 것이다”며 신념을 밝혔다.

의문사는 왜곡된 현대사의 비극적인 상징이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 마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근엄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역시 진상규명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의 눈길을 거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㉔

## “외압 있으면 그들도 파헤칠 것”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양승규 위원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추모단체 대표의 말에 양 위원장은 “외압이 있으면 외압하는 쪽을 파헤쳐서라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6일 오후 1시경,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간판을 내건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뒤편 카페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박연철 변호사, 화가 박세정 씨, 문성현 금속연맹 위원장, 강내희 중앙대학교 교수.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력에 제각기 초면이었지만,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다. 그들에겐 공통의 이해와 요구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안기부(현 국정원) 관련 의문사로 사랑하는 지인을 잃어야 했던 아픈 과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번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동 대책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각기 최종길 교수, 장준하 열사, 박창수 열사, 이내창 열사 추모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모인 사람들이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 양승규 위원장과의 면담은 약속대로 2시에 이루어졌다. 김형태, 문덕형 상임위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양 위원장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국정원 관련 의문사 단체 대표자들을 맞이했다.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지지 목적의 방문이었으므로 면담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우호적으로 진행



되었다. 면담 중 쟁점이 되었던 사안만 간단하게 추려 실는다.

### (전략)

강내희 :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상을 보면 과거 반민특위와 같은 것인데, 골간이 약해 보인다.

조사권이 제대로 발동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내창 열사 사건에서 보면 가해기관의 협의가 있는 국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 심히 걱정스럽다.

양위원장 : 위원장직을 수락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법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든 법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공감한다. 하지만 해방 후 반민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오욕된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마저 흐지부지 하면 되겠는가?

강교수가 염려하는 데로 진상규명위원회에는 강제수사권이 없다. 기한도 너무 짧다. 조사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예단하지는 말자. 하는데까지 해보고 정 안되면 입법을 하더라도 일단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내 생각이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조직은 전무후무할 것이다. 각 기관에서 나온 수사요원들과 민간 조사요원들이 혼재되어 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힘을 발휘할 것인가? 이것이 위원장인 내게 주어진 과제이자, 고통스러운 고민이다.

내 생각은 이렇다. 누가 과거에 어떤 기관에 있었든 따지지 말자. 어떤 기관에 있었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어두운 역사를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로 진상규명 활동에 임해주길 조사관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강내희: 국가파견 조사관과 민간 조사관의 위상,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가?

양위원장: 같은 위상, 같은 신분이다. 역할 분담에서도 차별은 없다.

김형태 : 실제로 조사과장이 검찰 출신 1명에 나머지 3명이 민간 조사관 출신이다. 국가 파견 조사관들의 반발도 심하다. 최소한 2:2는 되어야 하는데 1:3이라는 식으로 반발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겨우 무마시켰다.

문성현: 얼마 전 민주노총 금속연맹 공식회의에서는 박창수 열사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했다.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지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힘을 가져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양위원장 : 대통령의 의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철저히 하라고 해서 철저히 하고, 적당히 하라고 해서 적당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임명식 때 대통령이 ‘이 일은 산 자들의 책임이다’라고 당부하신 적은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법의 입법 정신, 이 법의 성립과정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가족들이 10년 넘게 탄원하고, 1년 넘게 천막농성을 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의지로 만든 법이 아니다. 우리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것마저 대통령의 의지 운운하며 적당히 얼버무린다고 하면 우리 민족에게 설 땅이 없어지는 것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다.

박연철 : 앞으로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 조직 운용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외압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위원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일이 어렵더라도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이길 바란다.

양위원장 : 이런 자리에 오게 될 지 나 역시 꿈에도 생각 못했다. 내가 책임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일단 임명된 이상에는 끝까지 한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원래 힘있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한다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다. 평화방송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 사람에게 돌팔매질하는 것은 두렵지 않다, 다만 하느님한테 죄를 짓는 것은 두렵다. 걱정 말라. 나 스스로 그만둘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위원장에 임명되고 나서 첫날, 기자들이 묻더라. 외압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그래서 대답했다. 외압은 무슨 외압이나, 이게 어떻게 만든 법인데..., 외압이 있으면 외압하는 쪽을 파헤쳐서라도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적어도 외압에 의해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스스로를 믿는다.

강내희 :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아 안심이 된다. 앞

으로 우리 진정인들도 목소리를 높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보다 많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양위원장 : 물론이다. 처벌이나 한풀이가 특별법의 목적이 아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그런 국민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도 많이 조언해주길 바란다.

박세정 : 장준하 추모사업회는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쪽인 것 같다. 나는 장준하 추모사업회의 대표자격은 아니지만, 위원장님께 최선을 다해달라는 격려의 말씀 전해주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차후에 돌아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

양위원장 : 이렇게 격려하러 와 주신 것에 대해 모두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이 법은 대통령의 의지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법의 의지, 국민의 의지가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국민적 성원이 뒷받침될 때 외압 따윈 결코 있을 수 없다. 우리 모두, 주어진 이 기회를 헛되이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위원장직을 수락한 이후, 수장의 진상규명 의지를 가늠하려는 비슷비슷한 질문 공세에 무수히 시달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승규 위원장은 비교적 성실하게 면담에 응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의 결론은 된다고 해도 힘든 일을 안 된다고 미리 예단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특별법의 한계, 안팎으로 닦쳐올 갈등과 외압에 대해 분명히 직시하고 있었다. 그런 한계와 어려움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저울과 칼을 양손에 들고 눈가림을 한 정의의 여신상처럼 양심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공명정대하게 법의 입법 의지를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양 위원장의 어깨가 무척 무거워 보인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스스로를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우리 또한 믿고 성원해주는 것, 진상규명을 향한 그의 행보 하나 하나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주목해주는 일, 그것뿐인 것이다.

2000/11/08 오전 9:30:40

## “아버지는 간첩이 아닙니다”

의문사1호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 아들 최광준 씨



▲ 27년이 지나고, 사진으로 삼대(三代)가 만났다. 위 사진(1972년 파리) 속 최종길 교수와 함께 있는 아들 광준이도 열살이고, 아래 사진 속(2000년 서울) 최광준 교수의 아들 유성(유성)도 열살이다.

2년전 최광준 씨(37세, 경희대 법학과 교수)가 아들 유성(유성)을 데리고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유성은 혼자 계신 그 집 할머니를 보고 대뜸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고 물었다.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유성은 이렇게 말했다.

“참 행복하게 돌아가셨네요”

유성이 나이 여덟 살 때였다. 과연 이 아이에게 행복하지 않은 죽음은 무엇이이었을까.

유성의 할아버지는 1973년 10월,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사망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당시 41세)다. 국내 의문사 1호로 기록되는 이 사건은 당시 최교수가 간첩이라고 의심되는 중학교 동창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50여 시간만에 모든 간첩혐의를 시인하고 7층 화장실 창문 밖으로 투신자살했다는 중앙정보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끝으로 종결되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내놓은 투신 현장에는 아무런 혈흔이 없었다. 반면 시신에서는 고문 흔적이 발견되었는데도 부검 현장에 유족측 의료진 입회는 거부당했다.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서둘러 장례가 치러졌다. 그렇게 2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올 가을 부친의 27주기 추모제를 치른 최광준 씨는 비로소 은폐 조작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면서도 마음은 더욱 무겁다.

뒤늦게나마 뒤들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그를 설레게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훌쩍 뛰어넘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아들의 존재 때문에

가슴이 아파 오기 때문이다.

열 살 때부터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의 죽음을 고스란히 떠 안고 살아야 했던 그가 이제 똑같이 열 살이 된 아들의 손을 잡고 여전히 누명을 벗지 못한 아버지 죽음 앞에 나란히 선 것이다.

“장례식을 치르는 데 정말 관을 뜯어 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간첩발표와 갑작스런 사망소식, 삼엄한 통제 속에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단절된 채 서둘러 치러진 장례식 후로도 오랫동안 가족들을 따라다니던 낯선 사람들의 감시와 협박.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린 소년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세상의 부조리를 스스로 깨달았다.

그는 어린 시절 간첩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여러 차례 학교를 옮겨 다녀야 했다. 잦은 이사 때마다 가장 큰 짐이었던 아버지의 책들을 어머니가 대학에 기증하자고 할 때도 극구 반대하고 나선 건 그였다.

“제가 커서 다 불 책이라고 어머니를 말렸어요. 아버님 누명을 벗기고 못 다 쓰신 책들도 제가 다 마무리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아버지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의 학문과 학생들을 사랑한 분이었기에 그것들을 탄압하는 당시 정치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곧 고문에 의해 살해되는 화를 불러온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결국 지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학생들 앞에서 자신은 떳떳하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너무나도 몰라요. 그건 학생들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알려 준 게 없는 걸요. 어떤 불의도 명확히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최종길 교수가 여전히 간첩의 누명을 벗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신도 역사와 정의 앞에서 죄인이라 생각하고 있다.

“저는 지금의 국정원이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의혹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걸 지지한다면 중앙정보부의 후신으로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할 당사자 아닙니까?”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조작하고 은폐한 가해자 개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정이 없다고 말한다. 다만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는 우선 진실이 밝혀져야 하지 않느냐고 애끓게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그 사건에 관계된 중앙정보부 사람들의 제보와 양심선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그런 제보자를 조직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을 밝혀 부디 당사자 스스로도 오랜 짐을 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응당 자신이 떠안아야 할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지는 이 고통은 분명 '덜고 싶은 무거운 짐'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바로 이런 고통을 사회 전체가 함께 위로하는 일이며, 또 이와 같은 희생의 재발을 막는 예방조치이기도 할 것이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뒤 틀린 역사를 바로잡고 모두가 이 짐을 훌훌 벗어 던져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종길 교수는 55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석사과정을 마친 뒤 스위스 취리히 대학과 독일 쾰른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70년 서울대 법대 조교수로 있으면서 정의를 외치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참된 스승의 길을 걸어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최종길 교수는 참고인 자격으로 중앙정보부(후 안기부, 현 국정원)에 출두했다가 1973년 10월 19일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10월 25일 중앙정보부는 최교수가 포함된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최교수가 범행을 자백한 후 화장실에서 뛰어내렸다고 밝혔지만,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국내외적인 비난에 직면해 있던 박정희 정권이 위기 모면을 위해 조작한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받다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짙어졌다.

공소시효만료를 앞두고 지난 88년 사인재규명을 요구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으나 "타살이라는 증거도, 자살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발표, 다시 미궁에 빠졌다.

2000/11/18 오후 7:42:22

## “더 이상 힘이 없어 먼저 갑니다” 살아남은 누이가 쓴 의문사 아들과 그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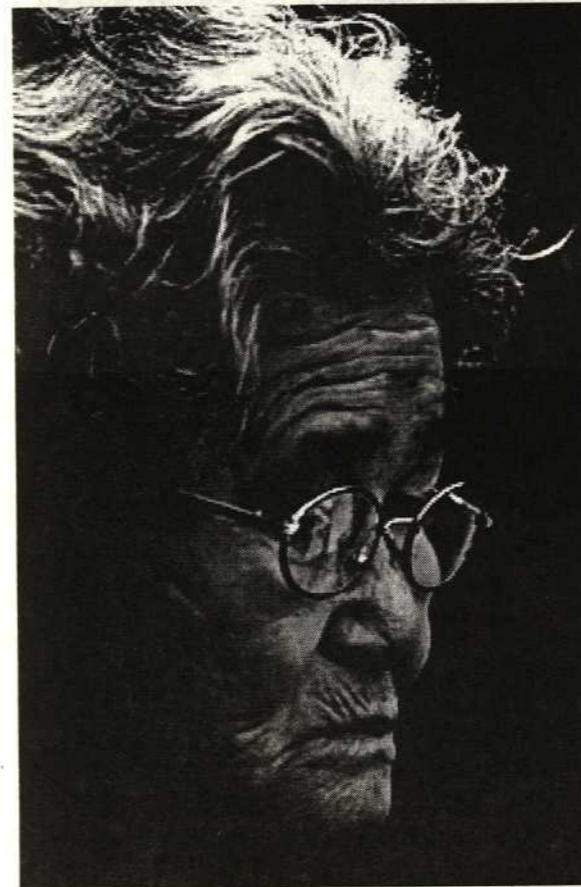
박수원 기자 wan@ohmynews.com

여기 오욕으로 얼룩진 우리 역사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권위주의 통치 아래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들의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중앙정보부 건물 7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투신자살했다고 발표된 전 서울대 법대교수 최종길, 군대에서 한줌의 재로 돌아온 전남대 학생 이이동, 창원 야산에서 유골상태로 발견된 대우중공업 노동자 정경식, 가스통 밸브작업 중 연행돼 여친군 돌산읍 바위굴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인천 도화가스 노동자 신호수, 보안대 녹화사업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려대 학생 김두황.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김현의 16명)는 23일 오전 10시 종로구 수송동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에 1차로 다섯명을 신원하기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420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 끝에 99년 12월 27일 얻어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지나간 세월을 넘어 이제야 빛이 보게 됐습니다. 11월 23일은 바로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역사 앞에 첫 진정을 하는 날입니다.



주름진 어머니의 가슴에 새겨진 통한. 420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 끝에 얻어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이제 빛을 보게 됐다. 고 정연관의 어머니 인분이 씨. © 오마이뉴스 노순택





오마이뉴스는 최종길(서울대법학교수, 73년 당시42세)씨에 이어 두 번째로 87년 6월 군에서 의문사한 이이동(전남대 학생, 당시22세)씨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이동씨 누나 이순희(37세)씨가 사건의 개요와 진상규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씨 아버지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 관련기사"아버지는 간첩이 아닙니다"

저는 아들 셋을 키우는 37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 특히 아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께 간곡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가슴 아리게 보고픈 아버지는 넓은 가슴 가운데 시퍼런 멍을 안은 채 절망과 좌절 속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13년전인 87년 여름, 우리 가족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군에 간 동생이 복무하던 부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없이 '위급하니 빨리 와달라'는 말을 듣고 다급한 마음에 밤 기차를 타고 경남 마산으로 달려갔지요.

한달 전 가족들이 면회 갔을 때만해도 씩씩하고 건강했었는데, 기차가 달리는 내내 동생의 건강한 모습을 떠올리며 아무 일 없기를 빌고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국군통합병원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동생의 영정이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가족들 모두는 정신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군사독재가 남긴 깊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민주의 길 위에 산화해 간 이들의 넋과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건 '산자'의 몫이다. 고 김성수의 어머니 전영희 씨  
© 오마이뉴스 노순택

시신이라도 보여달라고 했지만 상사는 그저 "가정 불화로 인한 비관자살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가정불화라니.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동생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재마저 없어지면 안될 것같아 고향 가족 묘지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 때부터 아버지는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때도 아버지의 심

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자식 키우는 부모입장이 되어보니 아들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의 원통함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아들만큼은 4년제 대학에 보내겠다고 막노동으로 학비를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소원대로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 2학년을 마치자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며 동생을 군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뿌듯해하셨던 아버지. 애지중지 키워서 나라지키라고 보내 놓은 자식이 한마디 말도 없이 자살을 했더니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아이가 좀 아프기 만해도 밤잠을 설치면서 가슴 졸이는데 말입니다.

아버지는 동생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셨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힘으로 아들이 자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다니셨고, 청와대, 국회, 국방부, 안기부, 검찰, 육군본부, 군부대 등등을 오가면서 아들이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탄원도 해보고 싸움도 해보셨습니다.

하지만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는 아버지가 동생의 진실을 밝히기에는 시대 상황이 너무나 어두웠고, 국가 기관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그러던 중 90년 11월 아버지는 동생이 근무한 부대의 중대장으로부터 무고죄로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의 부대원들을 찾아다니며 동생이 죽은 날, 교육 시간에 '학생데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학생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으며, 그로 인해 상사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는커녕 아버지마저 죄를 뒤집어쓰게 되었으니, 그 절망감은 어떠했을까요. 결국 아버지는 90년 스스로 목숨을 끊어 동생 곁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유서에 "더 이상 힘이 없어 먼저 갑니다. 남은 사람들이 진상규명과 민주화를 위해 힘써주세요"라고 마지막 당부를 남기셨지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지금만 같았어도 이렇게 긴 세월 동생의 죽음을 의문으로 남겨놓고 아버지마저 잃어버리지 않았을텐데. 그 때 저는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마냥 행복했을 땐 불행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불행할 땐 나만 불행을 겪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픔을 안고 살다보니 나만의 문제, 너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문제더군요. 동생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 저는 의문의 죽음을 당한 분들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죽음 이후 민주화되지 못했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의문사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요.

제 아이들 셋도 학교에 다녀야 하고, 군대에 가야 하고 직장에 다녀야 하겠지요. 이 아이들 세대에서만큼은 억울하게 죽고, 가족이 모두 불행해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고, 군대에 보내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들이 의문사 당한 많은 어머니들도 아들을 잃기 전에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내 아들은 상관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오셨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고 난 후 사회가 민주화되지 않으면 나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답니다.



제 사연을 듣고 무거움보다는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자 적어봅니다.

얼마전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위원회가 국가 기구로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억울한 죽음들의 진실을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한도 얼마쯤 풀어지겠지요. 천재로 인한 불행은 어쩔 수 없지만 인재의 불행으로 인한 억울함이 없는 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을 갖게 된 우리나라가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아들 낳고 군대보낼 생각에 한숨 짓던 기억**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 1차로 진정서를 제출한 이 동씨 누나 이순희씨에게 23일은 특별한 날이다.



© 오마이뉴스 노순택

“어떤 죽음이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겠지요. 이런 기관이 생겨서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국민연대에서 처음 연락이 왔을 때 미안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정말 진실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순희씨는 “아들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꼭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긴 채 90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아버지 대신 꼭 10년 만에 이 자리에 섰다.

이순희씨에게 동생과 아버지의 죽음은 지울 수 없는 무거운 짐이다. 동생과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연신 눈가를 훔쳤다. 13년 전 부대로 달려갔을 때 냉동실에서 나온 동생 모습을 보고 기절했던 그 때가 생각나는지 말을 잊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동생 죽었을 당시 사진을 봤어요. 피 흘리며 텅 그러져 있는 동생이 담긴 그 사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동생은 대학에 들어가서 참 고민을 많이 했다. 집에 와서는 학생운동 하는 친구 이야기며 현실이 잘 못됐다는 말을 하곤 했었다.

87년 군에서 죽은 전남대생 이이동씨 이순희씨는 지금 세 아이의 엄마다. 남들은 아들을 낳으면 좋아 한다지만 그는 첫째가 아들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덜컥 겁부터 낳다.

“‘아들이면 군대에 보내야 하는데’ 라는 생각부터 들어서 하나도 반갑지 않았어요. 그리고 큰 애가

나중에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군대는 안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잘 알아요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이라는데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는 제 모습이 얼마나 모순돼 있다는 걸요.”

이씨는 길거리를 가다가 쏘살췌 됐을 법한 남자를 보면 동생을 떠올린다. 죽지 않았다면 교육학과를 졸업해서 교사가 됐을 동생 이동이. 누나는 지금 동생이 너무 보고 싶다.



## “생선장사 어미 알잡아 보았더냐”

의문사 정경식 씨 어머니의 13년 싸움

정원옥 기자 angella71@hananet.net

88년 3월 2일, 창원 불모산에선 산불 진화 작업이 한창이었다. 불길이 거의 잡혀갈 즈음, 화재 수습반은 불에 그을린 채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한 구의 유골을 발견했다.

이상한 점은, 뼈가 불에 탈 정도였는데도 타지 않은 명찰 하나가 함께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아닌, 9개월 전에 실종된 정경식 씨의 대우중공업 사원 출입증이었다.

대우중공업 노동자로 노동조합지부장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정경식 씨가 왜 그런 죽음으로 돌아와야 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골이 발견된 현장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몇 가지 의혹이 쉽게 제기된다.

첫째, 목을 뺐다고 추정되는 나뭇가지에 끈이 매달려 있는데, 그 끈에는 목을 맨 흔적이 전혀 없었다. 둘째, 비나 흠에 휩쓸려 유골이 흩어졌다고 해도 가벼운 부위는 더 멀리, 무거운 부위는 보다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되기 마련인데, 반경 14-17미터 내외에 흩어져 있는 유골은 그런 자연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셋째, 목을 뺐다고 추정되는 나무 아래에서 시신이 썩기 시작했다면 토양이 변색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변의 토양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결정적인 의혹은 상의가 완전히 불에 타버렸는데, 사원 출입증만 불



에 타지 않고 원형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아들을 찾아 애타게 헤맸던 어머니, 김을선(66) 씨는 9개월 만에야 불모산 산자락에서 아들의 유골을 수습해왔다. 불에 탄 뼈 조각 하나라도 놓칠세라 사과 껍질에 차곡차곡 담아 마당 한편의 헛간에 데려다놓았다.

밤마다 촛불을 밝히고 어머니는 가슴을 뜯으며 울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둘째, 가난하고 못 배운 부모 만난 죄 밖에 없는 아들이 왜 이런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지 어머니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야당이 뭔지 여당이 뭔지도 몰랐어. 그런 건 우리 해당이 아닌 일인 줄 알았지. 우리 경식이 죽고 나서야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민주노조라는 것도, 우리 아들이 민주노조 세우려고 그렇게 뛰어들었다는 것도 아들 죽은 다음에야 알았어. 우리 경식이 무식한 엄마를 그렇게 깨우쳐 준 거야.”

가난한 농사꾼의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어머니는 학교라고는 문전에도 가보지 못했다. 22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와서도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만 하며 살았다. 생활은 늘 곤궁했다.

무릎이 불편한 시어머니,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쳐 꼼짝도 할 수 없는 남편, 2남 1녀의 가장 아닌 가장으로서 생선 합지박을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녀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다.

경식은 그런 집안형편 때문에 기계공고마저 중퇴하고 군대에 다녀오자마자, 노동자로 대우중공업에 입사해야 했다. 그래도 아픈 어미 마음을 잘 헤아려주었다. 새벽 3시 반이면 생선을 떼러 가야 하는 엄마 고생한다고 불편한 기속사 생활을 자청한 착한 아들이었다.

대부분의 의문사들이 그렇듯이, 경찰은 정경식 씨의 죽음을 ‘자살’로 종결지었다. 13년에 걸친 어머니의 진상규명 투쟁이 시작된 것도 그 때부터였다. 새벽 2시면 일어나 집안일 해놓고 어

니는 생선을 떼러나갔다.

생선 합지박을 지고 돌아다니면서 유인물을 돌렸고, 관련자들을 만나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름 없는 한 노동자의 죽음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혼자만의 서럽고 힘겨운 싸움이었다.

서울에서 유가협 부모님들이 내려온 것은 아들이 유골로 돌아온 지 반년쯤 지나서였다. 이 날의 일을 어머니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보다 더 기뻐했다고 회고한다.

어머니는 아들의 유골과 꼬박 3년간 함께 살았다. 사과껍에 넣어둔 채로 1년은 촛불을 밝히고, 2년은 전기 불로 대신하면서, 그 참상을 보다못한 유가협 부모님들이 어머니 몰래 유골을 모란공원으로 모셔갔다. 그래도 어머니는 장례는 치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진상규명이 되면 사과껍이 아닌 진짜 관을 짜서 당신 손으로 직접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아들의 죽음은 그렇게 어머니를 투사로 만들어갔다. 어머니는 10여 년 세월을 아들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쫓아다녔다. 서울과 마산 집을 오르내리며 언제나 집회장과 시위 대열의 맨 앞에서 있었다.

그 과정에서 아들 뺀 뒤는 경찰에게 붙잡혀 맞기도 무수히 맞았고, 공무집행방해, 법정소란, 폭행 등의 전과기록을 얻기도 했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삭발투쟁으로 호소할 때도 어머니는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머리를 깎았다.

“내가 껌한 거는 다른 게 아냐. 그 놈들이 우리 경식이를 죽이려고 맘먹었을 때, 아버지가 누워 계 시니까, 어미가 생선 장사나 하고 돌아다니니까 우리 아들을 앞잡아보고 그랬지 싶은 생각을 하니까 분하고 껌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아무리 못 배우고 못 가르친 썩은 어미여도 어미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는데... 그렇게 죽은 경식이가 불쌍 해서라도 나는 가슴에 묻어놓고 살 수가 없었어.”

지난 11월 23일, 마침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아들의 사건이 1차로 진정접수가 되었다. 마산에서 올라오신 어머니의 눈가에 이슬 한 점이 맺혔다. 아들의 사건이 1차로 진정되었다는 기쁨의 눈물은 결코 아니었다. 1차로 진정이 되든 마지막으로 진정이 되든 유가협은 하나고, 모든 의문사가 종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한다는 어머니의 마음 속 다짐은 변함이 없었다. 다만 모진 세월을 함께 잘 참고 견뎌왔다는 회한이 다른 유가협 부모님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주름 깊은 눈가를 축축하게 적셨던 것이다.

“어떨 때 내 살아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치. 편찮은 시어머니에 불구인 남편, 정신이 온 전치 못한 큰아들, 경식이마저 그렇게 보내고... 할머닌 참 복도 없다, 액운도 많다... 뒤에서 그렇게 수군거릴 거 같아.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큰아들이 그래. 엄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를 제일 존경해요, 훌륭한 엄마예요, 그러는 거야.”  
아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13년을 싸워온 동안 어머니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진상에 관한 법'의 대상자가 되었다. 경찰에게 얻어맞은 후유증



으로 하루도 육신거리지 않는 날이 없는 다리와 허리가 법에 의거, 보상이 된다고 해서 신청을 해 둔 상태다.

돈 몇 푼 때문이 아니라, 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싸워왔으므로 어머니는 망가진 몸이 조금은 떳떳하게 느껴진다.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생선장사 어미라고 해도 이제는 어느 누구도 당신 아들을 함부로 앞잡아보지 못할 것이다. 13년 세월, 어머니 당신의 몸으로 그렇게 역사를 바꾸어낸 것이다.

2000/11/27 오후 10:20:25

## “죽을 것인가, 친구를 팔 것인가” 83년 녹화사업희생자 고대생 김두황의 결론

(오마이뉴스에서는 '의문사, 이제는 밝혀라' 라는 주제로 의문사 관련 기사를 특집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 편집자 주)

81년 11월, 문무대 훈련장에서 군사집체훈련을 거부하며 시위를 벌인 고려대생들이 무더기로 강제징집되었다. 이들이 외친 구호는 “학원병영화 반대”, “광주항쟁진상조사”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109명. 이들 중에는 3대 독자도 있었고, 19살도 있었으며, 심지어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만의 '신성한 의무'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 관련기사 모음 특별기획 : 의문사, 이제는 밝혀라

한편 이들보다 1년 6개월 늦은 83년 3월, 또 다른 고려대생 한 명이 강제징집되었다. 경제학과 학회장을 맡는 등 주도적인 학내활동을 펼쳐왔던 김두황(경제학 80학번) 씨. 그는 동료들과 함께 성북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 받은 지 7일만에 강제징집자로 군대에 끌려갔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후, 두부가 날아간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 강제징집 - ? - 의문의 죽음

80년대 초, 군대라는 특수지역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강제징집 석 달만에 김두황 씨는 왜 처참한 시신으로 돌아와야 했는가. 김두황 씨 사건은 이런 의문을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80년 5월부터 83년까지 학생운동과 관련돼 격리된 학생들은 모두 1800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1363명이 제적 또는 투옥되었고 나머지는 강제징집되었다.

'감옥이나, 군대냐'의 막다른 길목에서 적지 않은 운동권 학생들이 가족의 권유 하에 군대를 선택했다. 초법적 절차에 따라 그들은 신체검사도, 입영통지서도 없이 경찰서에서 군대로 직행했다. 이들의 병적기록표에는 '특수학적변동자'라는 붉은 도장이 부대를 옮길 때마다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녔다. 80년대 보안사(현 기무사)는 이들 강제징집자들을 대상으로 기상천외한 사업을 고안해냈다. 붉은 색을 빼고 푸른색으로 물들이겠다는 녹화(綠化). 이른바, 녹화사업이라는 것을 전개한 것이다. 그것은 운동권 학생들의 사상을 개조해 반정부 운동권의 뿌리를 뽑는 데 이용하겠다는, 군이 스스로를 정치 도구화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빨간 색'을 빼는 작업은 방대한 분량의 자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의식을 푸르게 개조하는 순화교육이 뒤따랐다. 그 이후에 반성문과 서약서를 쓰게 하는데, 서약서란 보안사에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는 일종의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었다.

보안사는 푸르게 개조된 그들에게 특수 임무를 부여했다. 휴가를 나갈 때마다 같이 활동하던 동료들의 정보를 수집, 보고하는 “프락치 첩보 임무”를

하도록 한 것이다. “푸르게 개조되었음”을 증명해 보이는 보안사의 기준이란, “죽을 것인가, 친구를 팔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녹화사업은 감시와 회유, 협박과 고문의 연결고리 위에서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강제징집자들은 3년 내내 끊임없는 지시와 해괴한 공작으로부터 견디기 힘든 비인간적 고통을 감수하며 군대생활을 계속해야만 했다.

그들은 수시로 죽음의 위협을 받았으며 실제로 그들 중 몇몇은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강제징집자, 김두환 씨. 그도 그렇게 “프락치 첩보 임무”를 강요받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 <인터뷰1>

#### “두황이는 절대 자살하지 않았다” - 김두원 씨(김두환 씨 둘째형)

김두환 씨의 부고가 전해진 것은 83년 6월 19일 새벽이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놀란 형님 두 분과 매형 두 분이 그 길로 차를 몰아 22사단으로 달려갔다.

“오후 3시쯤 부대에 도착했는데, 동생이 차가운 바닥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코 위 부분이 날아간 처참한 상태로...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추울까... 차마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건만, 참혹하게 죽은 동생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형 김두원 씨의 말끝에 울음이 묻어 나왔다.

갑작스럽게 입대하게 돼서 얼굴 한번 못보고 헤어져야 했던 동생이었다. 가족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지만, 훈련소에 있을 땐 사단장 표창까지 받고, “군대 와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몸이 더 좋아졌다”고 오히려 가족들을 안심시켰던 동생이었다.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는 “보초 설 때 필요하니 야광시계를 보내달라”고까지 했다. 그런 동생이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처참한 시신으로 누워 있다는 것이 김두원 씨는 믿어지지 않았다.

군은 동생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 내렸다. “군무중 동료병사에게 소변보러 간다고 한 후 나가서 총성과 함께 자살했다”는 것이다. 자살동기는 ‘복무염증’, ‘특수학적변동자로 강제 입대하여 항상 감시 받고 있으며 내성적 성격으로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소외감 내지는 열등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는 것이다.

군은 유가족에게 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화장동의서를 받아낸 후 부검 또한 하지 않고 사건을 서둘러 종결지었다. 가족들은 변변한 항의 한번 못해보고 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서슬 퍼렇던 5공화국 시절, 그것이 가족들 가슴에 더 큰 한을 남겼다.

“기제사 때마다 보안사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동정이라도 살피듯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냥 자살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족들은 두황이가 자살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자살로는 설명되지 않는 의혹들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김두원 씨는 동생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혹

들을 제기했다.

M16을 연발에 놓아 네 발이 발사됐다는데, 사방으로 튀기 마련인 탄피가 가랑이 사이에 나란히 놓여져 있었던 점, 오른손잡이라면 당연히 왼손으로 총열을 쥐고 오른손으로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데 손의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었던 점, 또한 주머니에서 발견된 ‘끝’이라는 시를 군은 유서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한눈에 보기에 두황의 필체가 아니었다는 점 등이다.

“두황이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두황이가 말을 잘 듣지 않으니 다른 곳에서 죽이고 매복초소에 데려다놓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가는 군 측에서 재조사를 해주겠으니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연코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황이를 죽인 그들에게 면죄부를 줄 일이 있습니까?”

### <인터뷰2>

#### “녹화사업 때 죽음의 위협 느꼈다” -양창욱 씨(40고려대 사회학과 80학번)

83년 3월 8일, 그는 김두환 씨와 함께 성북경찰서로 연행됐다. 같이 형사기동대 차를 타고 103보충대로 끌려갔다. 신체검사도 없었다. 68훈련단에서 같이 훈련생활을 했고, 이등병 계급장도 함께 달았다. 그는 55연대 2대대로, 김두환 씨는 3대대로 배치 받았으며, 그 후로 다시는 서로 만날 수 없었다.

#### 녹화사업은 어떻게 받았나?

“보안대에서 받았다. 연대 대대 등 거치는 곳마다 보안대에서 불러 자술서를 쓰게 하고 조사를 받았

다. 본격적인 녹화사업은 두황이가 죽은 6월 이후 좀 유보됐다. 9월부터 시작됐다. 과천 분실에서 보름, 이후 진양아파트에서 지독하게 프락치 강요를 받았다. 또 ‘특별휴가’라는 명목으로 같이 학내 활동을 했던 과나 씨클의 친구, 학회의 후배 등의 동정을 보고할 것을 강요받았고, 실제 이루어졌다”

#### 김두환 씨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녹화사업을 받았다고 생각하나?

“당연하다. 같이 22사단으로 끌려간 김희근과 문택환의 경우가 그렇다. 나중에 종합해 볼 때 보안대의 고대생 녹화사업은 5월과 6월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김두환도 56월 본격적인 녹화사업 중 사망했다고 확신한다. 나만 좀 뒤늦게 받은 특별한 케이스다”

#### 녹화사업(프락치교육) 중 죽음의 위협을 느꼈는가?

“당시에 내가 (프락치)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들어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컸다. 이병, 일병일 때다. 게다가 거긴 군대다. 아버지 무덤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친구와 후배를 배신하고,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하는지 삶과 죽음에 대한 갈등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었다”

#### 진상규명위가 조사를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의혹의 열쇠를 풀어야 하나

“보안대 학원담당 핵심이 당시 고 소령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지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타살이나 자살이냐는 차후 문제다. 한 사

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군대가 군인을 프락치로 만들려고 했다가 벌어진 사건이다. 전두환 정권 때의 대표적인 인권유린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죽었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보안대 학원담당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인터뷰>

“녹화사업이 두황이형을 죽였다” - 장화식 씨(39. 고려대 1년 후배)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김두황 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으면서 고려대 1년 후배인 장화식 씨(現 사무금융노련 부위원장)는 기자의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군 생활 해 봐서 아시죠? 별모레 자살할 사람이 집과 친구나 애인에게 편지 보내고 시계까지 부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체의 머리 부분이 없어진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김두황 씨보다 2년 먼저 입대한 장 씨는 입대동기들로부터 김 씨의 전입소식을 전해들어 알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엔 후배인 줄 알았어요. 형일 줄은 몰랐죠. 그래서 철책근무가 끝나면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럴 작정이었습니다. 5월초쯤에 전입했으니까 한달 넘게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 6월18일 그렇게 된 거죠”

같은 대대에 근무했던 그가 알기로는 김두황 씨가 근무했던 중대에는 심하게 ‘갈굴’ 사람도 없어 적응이 힘들거나 비판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인다.

“사망 직후에 헌병대에서 나오고 그래서 저도 바로 알았죠. 근데 다음날부터는 함구령이 내려졌어요. 사망 사실에 대해서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후에 사고사례 전파나 그런 것도 없었구요”

고려대 109인 사건으로 강제징집된 장화식 씨도 녹화사업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이였다.

“시위 경력자 대부분이 녹화사업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를 받았죠. 보안사에서 주도한 이 사업은 일종의 의식화교육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저학년인데다 활동한 조직이 공개조직이어서 그런지 프락치를 강요받거나 조직도를 그려내라는 일은 없었어요”

녹화사업 과정에서 그가 읽은 책은 주로 ‘공산주의 비판’, ‘한민족의 용틀임’ 등 국가주의 반공주의 서적이 주를 이루었고 독후감을 수도 없이 써야 했다고 회고했다.

“제 생각입니다만, 두황이 형한테는 ‘사업’의 강도가 조금 더 셧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고학년이었던 경제학과 학회장이었고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었으니까요. 아마 그 (녹화사업)과정에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지난 달 23일 진상규명 진정접수와 함께 육군 22사단 강제징집자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낸 장화식 씨는 김두황 씨의 사인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이 살아남은 자신의 몫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11월 23일에 발표되었던 22사단 강제징집자들의 성명서다.



진상규명위... (Handwritten text from a petition or statement, partially illegible due to small font and handwriting.)

<성명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우리들은 1982년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 징집되어 22사단에 끌려갔던 사람들이다. 당시 강제로 징집된 사람들은 군대에서 녹화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광범위한 조사를 받았으며, 민주화 운동을 포기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당하였다. 더 나아가 동료나 선배, 친구를 배신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고 밀고하도록 강요당하였다. 사회와는 일정하게 격리된 군대라는 폐쇄적인 집단에서 자행된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인 만행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항거한 수많은 동지들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고 그들은 한결같이 자살로 처리되었다.  
이제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진상조사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특히, 군대 내에서 발생한 의혹투성이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그러면서 1983년 6월 동해안 경비를 맡고 있던 부대에서 밤사이 머리가 없어진 채 발견된 김두황 동지의 죽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동지는 고려대학교 재학 중 학생운동에 헌신하다가 성북경찰서에 연행, 강제 징집되고 뚜렷한 이유 없이 동해안 해안부대에서 시체로 발견되어 자살로 처리되었다.  
우리들은 같은 시기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

이며 당시 보안대나 안기부에 끌려가 조사와 회유를 받아본 경험자들로서 그 소식을 듣고 도저히 자살을 믿을 수 없었기에 즉각 관심을 가지고 사태의 전말을 조사하려 했다. 그렇지만 철저한 통제 속에서 들리는 것이라곤 밤에 경계근무를 서기 위해 나갔다가 갑자기 사라졌으며, 총성이 들려 가보니 스스로 머리를 쏘아 자살을 했고 군복 상의에서는 유언을 대신하는 지극히 염세적인 시구가 적힌 쪽지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유서로 제시된 ‘꿀’이라는 시는 평소 김두황 동지의 필적과 명확히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강제징집, 녹화사업을 겪었던 경험상 사망동기나 과정 및 그 후 신고경위 등에 수많은 의문을 지금도 떨쳐 버릴 수 없다.  
그 후 우리들은 군대를 무사히 제대했지만 함께 민주화를 외치고 군대에서는 같은 하늘아래에서 별을 보고 있었던 동료들을 죽음으로 남겨두고 왔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미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다. 당시의 가해자들이 오늘날 학교, 군대,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의 요직에 있기에 진상규명에 근본적인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제라도 양심선언이나 진상규명 협조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참회 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들도 이러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천명한다.

...  
 ...  
 ...  
 ...  
 ...



...  
 ...  
 ...  
 ...  
 ...

...  
 ...  
 ...  
 ...  
 ...

**발행일** : 2000년 12월 20일  
**발행인** : 양승규    **편집인** : 황인성  
**발행처**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2F  
**연락처** : 3703-5975~7(TEL), 3703-5978(FAX)  
**홈페이지** : www.truthfinder.go.kr  
**인 쇄** : 덕산인쇄(2279-6548)